



## 제1장 국민 삶의 질 측정 2013

이희길 · 심수진 · 박주언 · 배현혜

### 제1절 서론

#### 1. 추진연혁 및 업무범위

‘국민 삶의 질 측정’을 통해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의 현주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 제고 정책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삶의 질 측정의 궁극적 목적이다. 기존에 OECD의 BLI(Better Life Index)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복지지표(KIHASA Welfare Index)와 같은 국제비교 지표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국민 삶의 질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내용을 담고자 하였다. 생활영역별로 세분화된 측정 결과를 제공하여, 국민 생활의 다양한 영역에 대한 세밀한 모니터링이 가능한 시계열정보의 제공을 일차적인 목표로 출발하였다.

21세기에 접어들면서 국민 삶의 질이나 웰빙 측정의 중요성이 부각되었고, 이를 수용하여 통계청 내부에서 실질적인 연구를 시작한 것은 2008년부터이다. 당시 초기 연구는 청내에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논란을 야기하였으나 실제 연구성과는 삶의 질 개념에 적합한 지표의 부족, 측정틀/framework의 부재 등으로 다분히 시론적 단계를 벗어나지 못했다. 또한 이론적 검토가 취약하고 다양한 의견수렴이 부족한 상태에서 지표를 선정함에 따라, 측정 지표체계의 타당성과 신뢰성에 의구심이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이런 문제를 불식시키기 위해 2011년에는 「한국사회학회」와 공동으로 여러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여 지표체계를 개선하는 작업을 추진하였다. 당시 공동연구 용역을 통해 국민 삶의 질 측정틀을 실질적으로 구축하고, 이에 기반하여 9개

생활 영역에 걸쳐 84개의 최종 지표를 선정하였다.

측정틀 구축과 지표선정 연구 이후의 작업은 크게 두 가지 과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다. 하나는 생산이 되지 않거나 혹은 생산 연도가 짧은 지표의 생산이 지속적으로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기존 지표체계의 적절성(relevance)을 제고하는 작업이었다. 우선, '11년에 새롭게 구축한 지표체계에 따라 미비지표를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12년에는 「한국의 사회지표 체계개편」에 참여하여 미생산 지표를 생산하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이를 사회지표 체계에 모두 반영하였다. 또한 생산기반이 전혀 없었던, ‘주관적 웰빙(subjective wellbeing) 측정방안’에 대한 연구를 별도의 과제로 수행하고, 측정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OECD에서 제시한 ‘주관적 웰빙 측정 가이드라인’을 활용하여 측정문항을 제시하고, '13년에 이를 통계청 사회조사에 반영하여 생산하게 되었다. 또한, '13년에 공동체 및 시민참여 영역에서 주로 존재하는 미생산 지표를 생산하고자 한국행정연구원의 “사회통합 실태조사” 개발에도 적극 참여하여 필요한 지표통계 항목을 추가하였다. 이런 일련의 작업을 통해 미생산 혹은 미비통계의 생산을 추진하여 '11년에 구축한 지표체계의 생산기반을 거의 구축하였다.

하지만, 이런 과정에서 '11년 구축 지표체계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우선, 구축 당시에는 생산되고 있었던 지표의 생산이 중단된 경우가 발생하였다. 고용노동부의 ‘실업급여수혜율’, WHO의 ‘건강보정수명’이 그러하였다. 그리고 선정된 지표 중에서도 지표 선정 기준(criteria)에 못 미치는 지표도 목격되어 측정의 타당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내부에서 내부 검토를 실시하고 나아가 외부전문가 검토를 추가로 실시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지표체계를 보완함으로써 측정의 타당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삶의 질 측정은 다양한 철학적 접근법이 경쟁하고 있어 특히 지표의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일련의 문제해결을 통해 지표통계를 구축하고 측정의 타당성을 일정 수준 확보함에 따라, 향후 측정결과를 어떻게 가공하여 어떤 방법을 통해 제공할 것인가를 자연스럽게 고려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우리 보다 먼저 웰빙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제공하고 있는 해외의 선행사례를 주로 검토하였다.

## 2. 추진방법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추진현황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미생산 지표의 생산추진 및 기존 지표의 타당성을 제고하는 작업은 '12년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다. 이 외에 올해 연구에는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작업이 수행되었다.



먼저 우리의 삶의 질 측정에 해당하는 단위국가의 웰빙 혹은 삶의 질 측정지표 사례에 대해 추가로 문헌을 수집하여 검토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특히, 국제비교 사례나 민간에서 작성한 사례보다는 단위 국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과거에 검토한 경험이 있던 해외사례를 추가로 검토한 이유는, '09년 사례 정리 당시보다 작성하는 국가가 증가하였고 또한 우리의 업무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쟁점에 대한 시사점을 얻기 위한 것이었다. 먼저 어떤 국가들이 웰빙 혹은 행복 측정에 나서고 있는지 그리고 그 측정의 주체가 민간인지 아니면 국가통계청과 같은 국가 공식 기관인지, 지표선정의 방법과 관련해서 하향식(top-down)과 상향식(bottom-up) 중 어떤 방법을 활용하는지, 끝으로 결과물을 어떻게 산출하는지 등 연구과정에서 직면했던 쟁점을 중심으로 사례를 분석하였다. 추가로, 국내에서 우리와 유사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국가미래연구원의 「국민행복지수」에 대해서는 관련 학자를 직접 초청하여 사례를 소개받고 쟁점을 토의하였다. 국내의 사례에 대한 검토 결과는 2절에 체계적으로 제시되었다.

둘째로, 지표체계의 타당성 검토와 미생산 지표의 생산체계를 구축함에 따라 산출될 지표통계를 어떻게 활용한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가졌다. 먼저, 국가 통계포럼에 「국민 삶의 질 측정 : 쟁점과 도전과제」라는 세션을 구성하여, 다양한 학계 및 연구소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그리고 12월에는 별도의 포럼, 「국민 삶의 질 측정의 현황과 추진방향」을 개최하여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이런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향후 본 과제의 추진방향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한 내용은 3절의 '추진현황과 쟁점'에서 추진내용별로 요약하여 제시하였다.

셋째로, 이런 일련의 과제를 해결해 가면서 '국민 삶의 질 측정'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와 관련된 미래의 추진방향에 대한 탐색도 동시에 진행되었다. 이는 주로 해외사례 검토와 학회 발표의 형태로 추진되었다. 활용방법에 대한 해외사례 검토는 최종결과물 산출에서 종합지수화 여부, 가독성을 높이는 정보제공 방법, 정보전달 매체 등을 주로 검토하였다. 그리고 미래의 추진방향과 관련해서는 '웰빙', '삶의 질', '행복' 등의 개념으로 국내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연구과정에서 직면한 여러 쟁점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밟았다. 향후 삶의 질 측정과제의 발전방향과 관련해서 국가통계청의 역할, 민간영역에서의 지수화 추진여부, 인구집단별 세분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 제2절 해외사례 검토

2절에서는 삶의 질 및 웰빙을 측정하고 있는 국내외의 사례들을 검토하고, 이를 통해 삶의 질 연구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쟁점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해외사례를 통해서 검토하고자 하는 쟁점은 크게 세 개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 현재 어느 국가에서 작성하고 있으며, 작성주체는 누구인지, 둘째 작성과정에 있어서 지표 선정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표체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셋째, 결과물을 어떻게 산출하고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쟁점들에 대한 해외사례 검토를 통해 삶의 질 및 웰빙 측정에 있어서 국가통계청에서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해외사례의 검토에 있어서 국내실정과 비슷한 범위의 연구를 찾기 위해 국제기구보다는 단일국가의 작성사례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민간기관에서 추진된 연구보다는 통계청 및 정부기관에서 진행된 대표적인 연구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또한 1960~1970년대에 시작되어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과제보다는 최근에 시작된 과제를 주목하였다. 이에 따라 총 18개의 단일국가에서 수행되고 있는 삶의 질 연구 과제를 살펴보았으며, 각각의 사례를 쟁점별로 묶어서 정리하였다.

국내의 경우는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는 사례가 많지 않고, 이 연구에서 검토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벗어나는 경우(국제비교 지표이거나 특정집단의 삶의 질 지표 등)가 대부분이어서 검토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그러나 '13년 국가미래연구원에서 국민행복 지수를 발표함에 따라 국내사례의 경우는 국가미래연구원의 지표와 측정체계에 대해서만 추가하여 검토하였다.

### 1. 해외사례 현황

2008년 세계적 금융위기 이후로 GDP의 한계가 국제적으로 인식되고, Beyond GDP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다. GDP는 국민생활요소 중 물질적 조건의 일부만을 반영하기에, 건강, 일, 교육, 사회연결망이나 지속가능성 등은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GDP와 같은 경제 지표를 넘어선 '사회발전' 및 '삶의 질' 측정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국내 및 해외 여러 국가와 국제기구에서 삶의 질 개선을 중요한 정책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09년 스티글리츠 위원회의 삶의 질 지표작성에 관한 12개의 권고가 작성되었다(Stiglitz et al., 2009). 이에 따라 OECD는 2011년부터 Better Life Index를 발표하였고, 유럽연합위원회(European Commission)에서는 「GDP and Beyond: Measuring Progress in a Changing World」(European Commission, 2009)라는 보고서를 발행하였다. OECD의 Better



〈표 1-1〉 단일국가/국제기구 삶의 질 연구 시작년도

	국가/단체	연구 명	추진주체	연도
국제기구	EU	Social Protection & Social Inclusion: Common Indicators	European Commission (EU의 집행기관)	2006
	OECD	Better Life Index	OECD	2009
	EU	Quality of Life Indicators	European Statistical System 내 Sponsorship Group (SpG) on Measuring Progress, Well being and Sustainable Development	2011
유럽	네덜란드	Life Situation Index(LSI) - Wellbeing in Netherlands	네덜란드 사회연구원(SCP)	1973
	스위스	MONET Indicator System	스위스 연방통계청(SFSO), 연방환경국(FOEN), 연방주거개발국(ARE)	2000
	아일랜드	Measuring Ireland's Progress(MIP)	아일랜드 통계청	2003
	벨기에	WellBeBe	벨기에연방과학정책국(Belspo)	2006
	핀란드	Findicator	핀란드통계청, 핀란드총리실	2007
	영국	National Accounts of Well-Being(NAWB)	The New Economics Foundation (NEF)	2009
	영국	Measuring National Well-being(MNWB)	영국통계청	2010
	독일	Wachstum, Wohlstand, Lebensqualität(W3)	성장, 웰빙, 삶의 질 조사위원회	2010
	오스트리아	How's Austria	오스트리아 통계청	2012
	이탈리아	Measuring Equitable and Sustainable Wellbeing(BES)	이탈리아 통계청, 경제와 노동을 위한 위원회	2010
아시아	부탄	Gross National Happiness (GNH)	부탄연구센터	1999
	중국	Hong Long Quality of Life Index	홍콩중문대학 삶의 질 센터	2003
	일본	Measuring National Well-being(MNWB)	내각부 웰빙측정 위원회	2010
북미	캐나다	Canadian Index of Wellbeing (CIW)	워터루 대학 내 CIW네트워크	1999
	미국	Key National Indicators System (KNIS)	의회 KNIS 위원회	2003
오세아니아	뉴질랜드	Quality of Life Project	각 참여 시 시의회의 통합 삶의 질 연구팀	1999
	호주	Australian Unity Well Being Index	Australian Unity, Deakin대학의 호주 삶의 질 센터	2000
	호주	Measures of Australia's Progress (MAP)	호주통계청	2002

Life Index는 OECD 가입국의 삶의 질 현황을 비교하여 나타내고 있으며 유럽연합위원회의 보고서에서는 GDP의 한계를 넘어서는 삶의 질 지표에 대한 5개의 주요 활동(Key Action)<sup>1)</sup>을 지정하고 있다. OECD와 유럽연합위원회의 삶의 질 프로젝트 성과에 이어 여러 단일 국가에서도 새로이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표 1-1>).

캐나다, 호주, 미국, 뉴질랜드, 부탄, 스위스, 아일랜드 등에서는 2000년을 전후로 하여 이를 측정하고자 하는 노력이 진행되었으며,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독일, 일본 등에서는 2010년을 전후하여 이를 추진하고 있다.

## 2. 쟁점별 추진현황

### 가. 주체 및 국가통계청의 역할

단일국가에서 진행되고 있는 삶의 질 측정연구의 추진주체별로 살펴보면 크게 정부와 민간, 두 개로 구분할 수 있다(<표 1-2>).

먼저 정부에서 추진되는 사례들은 좀 더 세부적으로 통계청, 위원회, 기타 정부 기관, 통계청과 정부기관의 협력으로 구분하였다. 통계청이 단일기관으로 삶의 질 연구를 추진하고 있는 국가는 영국, 호주, 아일랜드, 오스트리아가 있다. 반면 핀란드, 이탈리아, 스위스의 경우 통계청과 다른 정부기관(총리실, 위원회, 환경국 등)이 같이 협력하여 삶의 질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정부에서 위원회를 설립하여 삶의 질 연구를 수행하는 사례도 있다. 독일의 경우 2010년 정부에서 2년의 단기로 조사위원회(enquete comission)을 설립하였고, 동일년도에 미국에서는 의회에서 정한 8명의 멤버가 국가주요지표체계 위원회를 이끌도록 법이 제정되었다. 이외에도 부탄의 경우는 정부기관인 부탄연구 센터에서, 뉴질랜드는 삶의 질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시의 시의회 통합 삶의 질 연구팀을 구성하여 추진되며, 벨기에는 연방과학정책국에서 이를 추진하고 있다.

두 번째로 민간기관에서 수행되는 삶의 질 연구는 연구소, 대학, NGO 또는 이들의 협동으로 진행된다. 캐나다의 CIW는 워터루 대학의 응용보건학부를 중심으로 한 CIW 네트워크 그룹에 의해 삶의 질 과제가 수행되고 있다. CIW 참여 외부네트워크로는 캐나다 내의 전문인으로 구성된 CIW 고문위원회와 국외 전문가 그룹인 국제자문네트워크, 국내 연구원 및 기술인 그룹인 연구자문위원회, 그리고 학내그룹인 Waterloo Development, Communications가 있다. 홍콩의 Quality of Life Index 역시 대학교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호주 Australian Unity Well Being Index는 Deakin대학 내 호주 삶의 질 센터와 Australian

1) ① 환경과 사회지표를 포함하여 GDP를 보완, ② 의사결정위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 ③ 분배와 불평등에 대해 더 정확하게 보고, ④ 유럽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스코어보드를 개발, ⑤ 환경과 사회적 이슈를 반영하여 사회계정을 확대



〈표 1-2〉 국가별 삶의 질 과제 추진주체

추진주체	국가별 프로젝트 추진주체
통계청	영국 Measuring National Well-being (영국통계청) 호주 Measures of Australia's Progress (호주통계청) 아일랜드 Measuring Ireland's Progress (아일랜드 통계청) 오스트리아 How's Austria (오스트리아 통계청)
위원회	일본 Measuring National Well-Being (내각부 웰빙측정 위원회) 독일 Wachstum, Wohlstand, Lebensqualität (의회 조사위원회) 미국 Key National Indicator System (의회 KNIS 위원회)
기타 정부기관	부탄 Gross National Happiness (부탄연구센터) 뉴질랜드 Quality of Life Project (각 참여 시 시의회의 통합 삶의 질 연구팀) 벨기에 WellBeBe (연방과학정책국)
통계청& 정부기관	핀란드 Findicator (통계청, 총리실) 이탈리아 BES (이탈리아 통계청, 경제와 노동을 위한 위원회) 스위스 MONET (스위스 연방통계청, 연방환경국, 연방주거개발국)
국책기관	네덜란드 Life Situation Index (네덜란드 사회연구원)
민간기관	영국 National Accounts of Well-Being (The Nef) 호주 Australian Unity Well Being Index (Australian Unity, Deakin대학 호주 Quality of Life 센터) 캐나다 Canadian Index of Wellbeing (위터루 대학 내 CIW 네트워크) 홍콩 Quality of Life Index (홍콩중문대학 삶의 질 센터)

Unity로 불리는 보험서비스단체의 협력과제로 이루어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영국의 National Accounts of Well-Being은 NPO 단체인 신경경제학재단(NEF: The New Economics Foundation)에서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단위국가별로 다양한 기관에서 삶의 질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추진 주체가 아니더라도 각 국가의 통계청은 각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통계청의 역할에 대해 스티글리츠 위원회에서는 “통계청은 각 사용자의 철학적 관점에 따라 다양한 종합 측정값의 연산에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Stiglitz et al., 2009). 이에 대한 예로 캐나다의 CIW 네트워크와 네덜란드의 사회연구원은 각 국가의 통계청이 수집한 자료로 지표를 정리한다. 그리고 통계청이 지표체계를 이끌어 나가는 곳은 이탈리아의 BES와 뉴질랜드의 Quality of Life Project가 있다. 통계청과 정부소속위원회의 협력과제인 이탈리아의 BES에서 통계청은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과학위원회(Scientific

comission)를 설립하여 지표를 평가 및 분석하고, 이에 따라 타당한 지표를 선정하며 지수 작성 시기를 판단한다. 또한, 뉴질랜드의 Quality of Life Project에서 통계청은 삶의 질 연구팀과 같이 일하면서 척도와 지표의 핵심 틀을 만들고 지방정부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그 역할은 지표체계 작성에만 국한되지 않고 정부기관들이 소유한 국가 하위지역정보를 검사 및 감사하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다.

<표 1-3>은 삶의 질 측정 단계별로 추진주체의 역할과 통계청의 역할에 대해서 정리한 것으로 뉴질랜드, 캐나다, 네덜란드 사례에서 보면 통계청이 작성주체가 아닌 경우에도 지표선정이나 통계생산과정에서 통계청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1-3> 삶의 질 연구 단계별 주체(국가통계청의 역할)

추진주체	국가	과제명	측정틀	지표선정	통계생산	결과물 산출		서비스 제공	
						지표	지수	온라인	보고서
통계청	한국	삶의질	○	○	○	○	×	○	○
	영국	MNWB	○	○	○	○	×	○	○
	호주	MAP	○	○	○	○	×	○	○
	아일랜드	MIP	○	○	○	○	×	○	○
	오스트리아	How's Austria	○	△	○	○	×	○	×
기타 정부기관	부탄	GNH	위원회	위원회	위원회	×	위원회	위원회	위원회
	뉴질랜드	Quality of Life Project	△	△	○	시의회 연구팀	×	시의회 연구팀	시의회 연구팀
통계청 & 정부기관	핀란드	Findicator	○	○	○	○	×	○	×
	이탈리아	BES	운영 위원회	○	○	○	×	○	○
	스위스	MONET	○	△	○	○	×	○	○
국책기관	네덜란드	LSI	국책	국책	○	×	국책	국책	국책
민간기관	영국	National Accounts of WB	민간	민간	민간	민간	민간	민간	민간
	호주	Australian Unity Well Being Index	민간	민간	민간	민간	민간	민간	민간
	캐나다	CIW	민간	△	○	민간	민간	민간	민간
	중국	홍콩 Quality of Life Index	민간	민간	민간	민간	민간	민간	민간

주: ○ 통계청 담당부분, △ 통계청 참여부분, × 진행되지 않음





## 나. 추진방법

### 1) 지표선정절차

국가별로 지표선정 과정을 보면 아일랜드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지표결정이 다양한 집단의 참여를 통해 이루어진다(<표 1-4>). 지표선정과정에서 지표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집단은 나라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대부분 추진주체에서 결정하는 경우가 많으며, 학자나 전문가 집단이 지표를 결정하는 경우(오스트리아, 독일, 이탈리아, 스위스 등)도 있다. 지표를 선정하는 과정은 방법에 따라 하향식 방법(top-down approach), 상향식 방법(bottom-up approach), 혼합식 방법(hybrid approach)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하향식 방법에서는 전문가가 설정한 지표체계를 바탕으로 지표를 작성한다. 따라서 동질적이고 과학적으로 타당한 지표체계를 작성할 수 있다. 많은 단일국가에서 하향식 방법을 택하고 있는데(부탄, 뉴질랜드, 네덜란드, 아일랜드 등) 주로 정부기관과 전문가 또는 통계청과 전문가의 협력으로 이루어진다. 반면에 상향식 방법은 시민, 지역사회 지도자, 연구자들이 참여하여 지표를 선정하는 방법이다. 전문적 배경이 비교적 부족하기 때문에 지표의 논리적 일관성이 상대적으로 결여된다는 단점과 미래에 야기될 큰 이슈들을

<표 1-4> 각 국가별 지표선정절차, 지표선정주체 및 참여자

추진주체	국가/단체	과제명	절차	지표결정자(◎) 및 참여자(○)			
				통계청	정부기관	학자/전문가	NGO/시민
통계청	영국	MNWB	Hybrid	◎	○	○	○
	호주	MAP	Hybrid	◎	○	○	○
	아일랜드	MIP	Top-down	◎			
	오스트리아	How's Austria	Top-down	○		◎	
위원회	일본	MNWB	Hybrid		◎	○	○
	독일	W3	Top-down		◎	◎	
	미국	KNIs	Hybrid		◎	○	○
기타 정부기관	부탄	GHN	Top-down		◎		
	뉴질랜드	QoL Project	Top-down	○	◎	○	
통계청 & 정부기관	핀란드	Findicator	Hybird	◎	○	○	○
	이탈리아	BES	Hybrid	◎	○	◎	○
	스위스	MONET	Top-down	○	○	◎	
국책기관	네덜란드	LSI	Top-down		◎	◎	
민간기관	캐나다	CIW	Hybrid	○	○	◎	○

간과할 가능성이 있어 지속가능한 발전에 저해가 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단점 때문에 상향식 방법으로 지표작성을 하는 사례는 거의 드물다.

또 다른 지표선정방법은 혼합식 방법으로 하향식 방법을 통해 설정된 지표체계를 바탕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지표체계에 반영하는 것이다. 혼합식 방법의 장점은 전체적인 지표체계가 전문적인 이론적 틀에 기반해 있으면서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함에 따라 현실에서의 체감도가 높다는 장점이 있다. 혼합식 방법을 이용하여 지표선정을 하는 국가로는 호주, 캐나다, 영국, 일본, 미국 등을 들 수 있다.

현재 기존의 지표체계를 전면적으로 수정 중인 호주 MAP는 2009년 전문가 그룹을 소집하여 2011년까지 여러 번의 자문회의 및 지역 워크숍을 실행하였고 2011년 9월부터 11월 사이에 온라인으로 호주 국민이 열망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수집하였다. 이는 블로그, SNS 등을 통하여 진행되었는데, 이를 통해 얻어진 의견은 다시 연방정부 워크숍과 전문가 토론을 통해 다듬어지고 정리되었다.

영국 MNWB의 경우, 영국통계청이 지표선정을 위해 2010년 11월부터 2011년 4월까지 국내토론을 통하여 “무엇이 중요한가?”에 대해 의견을 수집했다. 의견공표는 온라인으로도 가능했고, 전국적으로 175개의 이벤트가 개최되어 총 7,250명이 현장미팅에 참여하였으며 약 34,000개의 응답이 모였다. 영국 통계청은 수집한 응답을 정리하여 2011년 영역과 지표의 초안을 작성하였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영역 및 지표의 초안을 공표하여 2011년 10월부터 2012년 1월까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의견수렴 과정은 온라인 설문 조사, 보고서, 블로그, 이메일 등을 통하여 진행이 되었으며 약 1,700개의 온라인 설문 결과를 수집하였다. 그리고 2012년 7월 이러한 의견들을 참고하여 영역과 지표를 수정하는 과정을 거쳤다(이탈리아, 일본, 핀란드, 미국관련 지표선정절차는 <부록>에 각 국가별로 제시되어 있다).

이와 같이 혼합식 방식을 통한 삶의 질 연구에서는 일반국민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수용되어 실질적인 삶의 질 현황을 파악할 수 있으며, 측정결과에 대한 현실에서의 체감도도 높아질 수 있다. 따라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의 측정 체계를 기반으로 하여 국민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여론수렴과정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국내 삶의 질 과제는 전문가 기반의 하향식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여기에 시민, NGO 등을 지표선정과정에 참여시킨다면 국내 상황으로의 적실성을 강화시킬 수 있으며, 일반국민들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다. 그 방법으로는 전문가 심포지움, 공청회(public forum), 워크숍 및 SNS, FGI, blog 등을 통한 시민 여론조사 등이 활용될 수 있다.



## 2) 지표선정기준

다음으로 국제기구 및 단일국가의 지표선정기준을 알아보았다. 구체적인 지표선정기준이 공표된 국가 및 국제기구의 기준을 모아 중복되는 항목을 검토한 결과 <표 1-5>와 같이 크게 자료의 질, 타당성, 중립성의 3개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자료의 질에는 자료가 신뢰할 만한지, 지표가 성, 연령, 지역 등 하위인구집단별로 세분화가 가능한지, 시계열로 추적되는 자료인지, 국제비교가 가능한지, 자료가 시의성있게 산출되는지 등 지표를 구축하는 자료의 우수성을 평가하는 항목들로 이루어져 있다. 두 번째로 자료의 타당성에서는 해당 지표가 삶의 질(웰빙) 측정에 있어 타당한 지표인지, 이해하기 용이한 자료인지, 지표의 증감에 대한 방향성이 명확한지, 일관성이 있으며 전체를 포괄하는 지표인지, 정책이나 사회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표인지, 투입이 아닌 산출에 초점이 맞춰진 지표인지 등 사용지표의 적합성을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지표의 중립성은 지표가 정치적으로 편견이 없는지에 대해 판단한다.

<표 1-5> 국제기구 및 단일국가의 지표선정기준

기준	OECD BLI	EU Common Indicator	호주 MAP	캐나다 CIW	영국 MNWB	뉴질랜드 QoL Project
자료의 질	신뢰성		○		○	○
	인구집단별 분해가능성			○		○
	시계열 추적	○		○	○	○
	국제비교	○	○			○
	시의성		○	○	○	○
	이용가능성		○		○	○
자료의 타당성	타당도	○	○	○	○	○
	이해용이성		○	○	○	○
	방향의 명확성	○		○	○	
	일관성 및 포괄성	○			○	
	사회/정책 민감성	○	○	○	○	○
중립성	산출에 초점	○		○	○	
	정치적 편견이 없음		○		○	

이 세 가지 기준을 도입하여 국내 실정에 맞게 구체적인 지표선정기준을 작성하였다 (<표 1-6>). 국내에서 한국사회의 삶의 질 변화정도를 측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크게 자료의 질, 적절성, 중립성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자료의 질 측면에서는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활용자료가 공식통계인지, 전체 인구를 포괄하고 있는지, 시계열로 측정된 지표인지 등의 기준으로 평가하고자 하였다. 적절성에서는 삶의 질을 측정하는 데 있어 타당한 지표인지, 투입이나 과정보다 산출에 초점을 맞춘 지표인지, 모호함없이 쉽게 이해가능한 지표인지, 정책개입에 따라 민감하게 변화하는 지표인지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또한 우리의 사회적 맥락에 부합하는 지표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국내 상황 적합성’이라는 항목을 추가하였다. 이는 각각의 지표가 국민 삶의 질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우리 사회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이다. 마지막으로 중립성에서는 정치적 편견이 반영되지 않은 지표를 선택하고자 하였다.

<표 1-6> 국내 삶의 질 연구 지표 타당성 평가기준

	기준	내용
자료의 질	공식통계	자료의 신뢰도가 일정 수준 확보된 공식통계
	포괄범위	가능한 전체인구를 포괄
	시계열 확보	동일 척도로 반복적인 측정 자료 누적
적절성 (relevance)	액면타당도 (face-validity)	본래 의도한 바대로 측정할 수 있는 정도
	산출에 초점 (outcome)	투입/과정보다는 산출에 초점
	이해용이성	모호함이 없이 쉽게 이해 가능
	정책 반응성	정책개입에 민감하게 변화
	국내 상황 적합성	우리 사회적 맥락에 부합
중립성	-	정치적 편견이 반영되지 않아야 함

### 3) 객관/주관 지표 비율

지표는 크게 측정내용에 따라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로 나뉜다. 객관적 지표는 객관적인 삶의 수준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주관적 지표는 실질적으로 국민이 느끼는 만족도나 인식정도를 측정한다. 객관적 지표는 전문가가 수치를 이용하여 평가하기에 정책적 활용이나 시계열 비교가 용이하다. 그러나 삶의 질 측정에 있어서 중요한 국민의 심리를 간과한다는 단점이 있다. 주관적 지표의 경우 일반국민이 자신이 느끼는 만족도에 대해 평가하는 것으로 국민의 다양한 견해를 반영할 수 있고 국민의 실제 체감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 하지만 비전문가의 판단이기 때문에 현실을 반영하기보다는 열망(기대)의 수준이 결과로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에 나타나는 장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국제기구 및 단일 국가에서는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를 혼합하여 지표체계를 구성한다. <표 1-7>은 대표적인 몇 국가의 지표체계 구성표이다. 주관적 지표의 평균비율은 21.8%로 약 5분의 1의 비중을 차지한다. 가장 적게 주관적 지표를 사용하고 있는 삶의 질 연구는 호주의 MAP로 총 69개의 지표 중 주관적 지표는 3개(4.3%)이다. 영역별로 보면 주관적 웰빙 영역을 제외하고 주관적 지표가 주로 많이 활용되는 영역은 사회적 관계, 시민참여, 건강 영역에서 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표 1-7> 국가/기구의 영역, 지표, 주관지표 분포 및 비율

국가/기구		OECD	한국	호주	캐나다	부탄	일본	
과제명		BLI	삶의 질	MAP	CIW	GNH	MNWB	
영역수		11영역	12영역	3영역, 17차원	8영역	9영역	3영역, 12요소	
지표수(주관지표수)		22(4)	84(26)	69(3)	64(13)	102(28)	132(39)	
주관지표 비율(%)		18.2	31.0	4.3	20.3	27.5	29.5	
물질적	생활 수준	소득/소비/자산	2	8(2)	10	8	12	15(4)
		노동	3	4(1)	6			
	사회복지			3				
	주거		2	4(1)	4			9(2)
	기초육구							14(3)
비물질적	건강		2(1)	8(2)	4(1)	8(4)	5(2)	21(5)
	교육/기술		2	10(2)	3	8	12	13(3)
	문화/여가	생활시간	3	6(2)		8(1)	2	7(2)
		문화/여가활동				8	5(1)	
	사회적 관계/가족	사회적관계	1(1)	9(2)	4	8(4)	11(6)	18(6)
		가족						8(5)
	사회 시스템	시민참여/거버넌스	2	10(8)	9	8(4)	21(1)	5(3)
		안전/범죄	2	9(2)	7(2)			
	환경		1	11(2)	22	8	15(1)	16
	주관적 웰빙		2(2)	2(2)			19(17)	6(6)

## 다. 결과물 산출 및 활용

국제기구 및 단일국가 삶의 질 연구의 결과는 보고서나 온라인으로 주로 지표나열법 또는 종합지수화 방법을 사용하여 제시된다. 지표나열법(suite of indicators)은 지표 결과를 그래프 등과 함께 나열하며 설명하는 방법이다. 지표나열법에서 지표는 주로 다년간의 결과를 한 번에 보여주는 시계열그래프로 제공된다. 국제기구 및 단일국가에 따라 국가별 비교, 인구집단별 비교(성별, 연령 등), 지역 간 비교를 하기도 한다. 지표나열법은 사용자가 자신의 관심사에 따라 직접 지수를 작성하거나 이에 대한 견해를 형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지수 생산을 정확히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결과적으로 GDP가 지배적인 지표로 남게 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자료제공자의 지수화에 대한 관심없이는 통계제공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각 영역을 잘 반영하는 핵심지표를 제공하지 않고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이 쉬운 지표만 작성하여 제공한다면 지표사용자가 제대로 된 지수생산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사용자 입장에서는 쉽게 활용가능하고 이해하기 쉬운 전체 지표를 포괄하여 단일 수치로 제공되는 종합지수화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종합지수화는 여러 개의 지표들을 단일수치로 종합하여 제공함에 따라 사용자가 쉽게 활용가능하고, 이해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지수화하는 과정에서의 영역별 지표의 선정, 합산 방법, 가중치 여부 등 많은 부분에서 작성자의 의도가 반영될 여지가 많다. 따라서 지표를 생산하는 통계작성기관에서 종합지수까지 계산하여 공표하였을 경우 정치적인 중립성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 이에 대해 스티글리츠 위원회에서는 “삶의 질의 단일한 요약측정법을 구축하는데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통계청은 각 사용자의 철학적 관심에 따라 다양한 종합 측정값의 연산에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해야 한다”(Stiglitz et al., 2009)라고 권고하며 통계청은 지수화 대신 올바른 지표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가 OECD에서 제공하는 BLI로 웹사이트(www.oecdbetterlifeindex.org)에서 각 국가의 11개 영역별 지표값을 제공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각 영역별로 가중치를 부여하게 되면 이 가중치에 따라 각 나라별 종합지수값이 산출되도록 서비스하고 있다.

국제기구와 단일기구의 지수화여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단일국가의 통계청에서 작성되는 경우 보통 지수화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표 1-8>). 호주, 영국 등 통계청이나 정부기관에 의해서 삶의 질 과제가 수행되는 경우 종합지수 작성보다는 지표나열법에 중점을 두어 시계열, 인구집단별 비교, 지역 간 비교 등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종합지수를 제공하는 영국의 National Accounts of Well-Being, 캐나다의 CIW 등은 해당국가의 통계청 또는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기관과 대학 관련 네트워크에 의해 추진된 연구이고 네덜란드의 LSI 역시 네덜란드 사회연구소라는 국책연구원에서



시행되고 있다. 즉 정치적인 중립성 문제에서 좀 더 자유롭게 지수화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부탄의 국민행복지수의 경우 국왕에 의해 국민행복지수 프로젝트가 시작되었고, 2008년 입헌군주제의 도입과 함께 국민행복지수를 국가 정책의 기본틀로 책정하였기 때문에 정치적 문제를 느끼지 않고 종합지수를 작성할 수 있다.

두 번째로 결과물 공표 방법을 <표 1-9>에 정리하였다. 조사된 단일국가 중 핀란드의 Findicator와 오스트리아의 How's Austria를 제외한 모든 국가가 보고서로 결과물을 공표하고 있다. 호주의 MAP, 스위스의 MONET, 캐나다의 CIW 등의 경우 지표값의 개선

<표 1-8> 국가/기구 별 지수화여부 및 분석방법

추진주체	국가/기구	과제 명	지수화여부		분석방법			
			종합 지수화	지표 묶음법	시계 열	국가 비교	인구 집단	지역 비교
국제기구	OECD	How's Life	○	○		○		
통계청	한국	국민 삶의 질		○	○			
	영국	MNWB		○	○		○	○
	호주	MAP		○	○		○	
	아일랜드	MIP		○	○	○	○	
	오스트리아	How's Austria		○	○	○	○	
기타 정부기관	부탄	GNH	○				○	○
	뉴질랜드	Quality of Life Project		○	○		○	○
통계청& 정부기관	핀란드	Findicator		○	○			
	이탈리아	BES		○	○		○	○
	스위스	MONET Indicator System		○	○			
국책기관	네덜란드	LSI	○		○		○	
민간기관	영국	National Accounts of WB	○	○		○	○	○
	호주	Australian Unity WB Index	○	○	○		○	○
	캐나다	CIW	○	○	○			
	중국	홍콩 Quality of Life Index	○	○	○			

정도를 신호등으로 표기하였다. 신호등 방식은 지표값의 증가, 감소, 정체 정도를 화살표나 색깔로 구분하여 한눈에 알기 쉽게 제시하는 방식을 말한다. 영국의 MNWB는 보고서의 각 지표 아래 온라인 링크를 두어, 컴퓨터로 열었을 시에 자료 값을 내려 받을 수 있는 온라인 페이지로 연결된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자료를 제공하는 곳은 호주의 MAP, 아일랜드의 MIP 등이 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지표 및 지수에 대한 결과 또는 신호등을 제공하는 곳은 호주의 MAP, 부탄의 GNH, 캐나다의 CIW 등이 있다. 영국의 National Accounts of WB, 오스트리아의 How's Austria, 뉴질랜드의 Quality of Life Project의

〈표 1-9〉 국가/기구 별 결과물 산출 방안

추진 주체	국가	과제명	보고서			온라인				
			자료 제공	지표 묶음/지수	신호 등	보고서 제공	자료 제공	지표 묶음/지수	신호 등	대화형 그래프
통계청	영국	MNWB	○	○		○				○
	호주	MAP		○	○	○	○	○	○	
	아일랜드	MIP		○		○	○			
	오스트리아	How's Austria						○	○	○
기타 정부 기관	부탄	GNH		○		○	○	○		
	뉴질랜드	Quality of Life Project		○		○				○
통계청 & 정부 기관	핀란드	Findicator						○		
	이탈리아	BES		○		○			○	
	스위스	MONET		○	○	○			○	
국책 기관	네덜란드	LSI		○		○				
민간 기관	영국	National Accounts of WB		○		○	○			○
	호주	Australian Unity Well Being Index		○		○				
	캐나다	CIW		○	○	○		○	○	
	중국	홍콩 Quality of Life Index	○	○		○				





경우 온라인 대화형 그래프를 사용하여 일반인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핀란드의 Findicator와 오스트리아의 How's Austria를 제외한 모든 국가의 연구과제 보고서는 온라인 사이트에서 제공되고 있다.

### 3. 해외사례 시사점

삶의 질 및 웰빙 측정의 해외사례 검토를 통해서 우리가 찾고자 했던 시사점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어떤 국가에서 작성하고 있으며, 작성주체는 누구인지, 둘째, 작성과정과 관련해서 어떻게 작성하고 있는지, 셋째, 작성한 결과물을 어떻게 산출하고 활용하고 있는지에 있다. 여기에 중점을 두고 해외사례들을 검토한 결과, 국가 통계청에서 삶의 질이나 웰빙 등의 사회발전을 측정하고 있는 사례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추세는 특히 2010년을 전후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는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의 증가가 비단 우리나라뿐 아니라 국제적인 추세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두 번째 시사점은 작성과정과 관련된 것으로 지표의 선정과정에서는 추진주체와 정부기관, 학자 및 전문가 집단뿐 아니라 NGO와 시민들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학자 및 전문가 집단의 의견수렴은 거의 다 포함시키고 있으며, NGO나 시민단체의 의견수렴은 영국, 호주, 일본, 미국, 핀란드, 이탈리아, 캐나다 등에서 진행 중이다. 시민들의 의견수렴 과정은 영국과 호주, 이탈리아, 일본의 경우 온라인을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캐나다, 미국에서는 공공회의나 포럼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한다. 이는 지표선정과정에서 다양한 집단의 의견수렴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세 번째로 결과물 산출과 관련해서 해외의 삶의 질 및 웰빙 측정 사례에서 주의깊게 봐야 할 점은 통계청이나 국가기관에서 작성하는 경우 부탄을 제외하고는 종합지수를 작성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종합지수를 작성하는 경우는 민간 연구기관 주도로 작성되는 경우만 종합지수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다른 나라에서도 종합지수를 작성할 경우 정치적 중립성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결과물 산출 방식에 있어서 보고서와 원자료뿐 아니라 지표들의 개선정도를 보기 쉽게 보여주는 신호등 방식의 요약(호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스위스, 캐나다)이나 대화형 그래프를 제공(영국, 오스트리아, 뉴질랜드)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은 방식은 사용자 측면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러한 방법을 활용하여 결과물의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 4. 국가미래연구원 결과 검토

국가미래연구원에서는 올해 7월 ‘국민행복지수’를 발표하였다. 국가미래연구원의 ‘국민행복지수’는 분기별로 발표되는 자료로 3개의 대항목(경제성과 및 지속가능성, 삶의 질, 경제/사회 안정 및 안전), 20개의 중항목, 34개 개별지표로 구성된다. 지수 산출을 위해 개별지표의 가중치<sup>2)</sup>를 이용해 가중합을 구하여 지수를 산출하고 있다. 개별 지표들 중 긍정적 지표는 0~100의 값을, 부정적 지표는 -100~0의 값을 갖기 때문에 가중합을 갖는 국민행복지수는 -100~100의 값을 가지며, 중항목 지수는 AHP 가중치를 적용하여 비교의 일관성을 위해 0~100의 지수로 나타내고 있다.

국가미래연구원의 ‘국민행복지수’와 통계청의 ‘국민 삶의 질 측정’을 비교해보면 (<표 1-10>), 국가미래연구원의 경우 분기별로 작성되며 2003년 1분기에서 2013년 1분기까지 가중치를 부여한 종합지수값을 제공하고 있다. 지표구성에서 보면 34개의 객관지표로만 구성되어 있어 ‘국민 삶의 질 측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84개 지표와는 크게 차이를 보인다.

<표 1-10> 국가미래연구원과 통계청과의 비교

	통계청	국가미래연구원
명칭	국민 삶의 질 측정	국민행복지수
주기	1년	분기
지수	지표	지수화(가중치 부여)
분석	시계열 비교	시계열 비교
영역수	12개	3개 대분류, 20개 중분류
지표수	84개	34개
객관/주관 지표 비중	객관지표와 주관지표 (56개, 28개)	객관지표로 구성
지표특징	환경, 안전, 교육 영역의 지표가 많고, 노동, 복지 영역은 지표가 적음	소득, 소비, 노동 분야 지표로 주로 구성됨
공통지표	지니계수, 고용률, 기대수명, 공교육비 지출, 학업중단률, 자살률, 부패지수, 범죄율, 온실가스배출량	
유사지표	상대빈곤율(절대빈곤율), 1인당 사교육비 지출액(민간교육비부담),	

2) 가중치는 전문가 3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AHP 분석에서 일관성 비율이 0.1 이하인 19명의 설문결과를 평균하여 각 구성요소들의 중요도를 산출한 것임



세부적인 영역과 지표를 비교해보면 국가미래연구원의 지표는 주로 소득, 소비, 노동 분야 지표가 주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객관지표로 구성함에 따라서 개인들의 만족도나 인식정도는 포함하지 않고 있다.

〈표 1-11〉 국가미래연구원과 영역구성 비교

영역		통계청 국민 삶의 질	국가미래연구원 국민행복지수	
		(12영역)	(3영역, 20개 중분류)	
물질적	소득/소비/자산	○	경제성과 및 지속가능성	1인당소비지출
				1인당 교양 및 오락비 지출
	노동	○		1인당 정부부채
	사회복지	○		1인당 자본소득
	주거	○		1인당 인적자본 형성 및 노동생산성
비 물질적			삶의 질	1인당 가계부채
	건강	○		고용
				건강
	교육/기술	○		민간교육비 지출
	문화/여가	○		환경
	사회적관계/가족	○		주거
				문화시설
	시민참여 /거버넌스	○		중산층 비중
경제/ 사회 안정 및 안전	안전/범죄	○	물가	
			소득분배	
	환경	○	사회안전	
			부패와 신뢰수준	
	주관적 웰빙	○	자연재난/재해안전	
		식품안전		
		노후안전		

### 제3절 추진현황 및 쟁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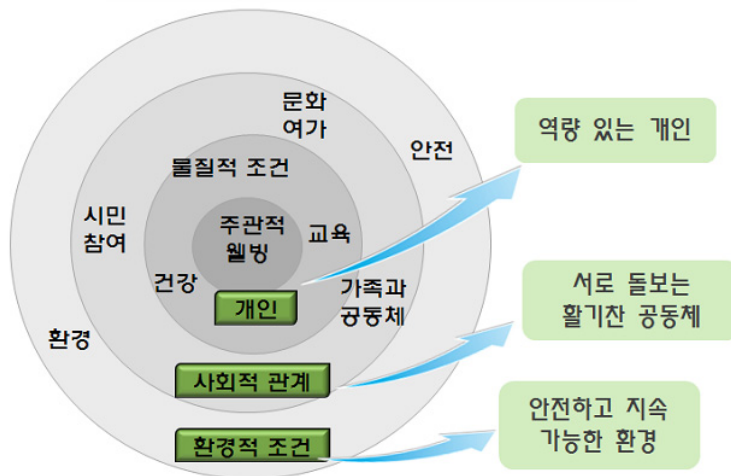
#### 1. 삶의 질 측정 체계

##### 가. 삶의 질 측정틀

삶의 질 측정틀은 『국민 삶의 질 측정을 위한 분석틀』(한국사회학회, 2011)의 연구 결과에서 제시하고 있는 측정틀과 영역체계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보고서에서 제시

하는 삶의 질 측정들은 개인을 중심으로 한 동심원 형태로 나타내고 있다. 개인을 중심으로 중간에는 사회적 관계가, 가장 바깥 쪽에는 환경적 조건이 위치하는 형태로 크게 세 개의 차원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차원별 사회적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그림 1-1).

각 차원별 목표는 개인의 경우 “역량있는 개인”으로 즉 교육을 통해서 지식과 일할 능력을 갖추었으며, 경제적 여유와 복지혜택을 누리며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개인이다. 다음으로 사회적 관계는 “서로 돌보는 활기찬 공동체”로 즉 사회적 통합과 결속이 이루어지고 시민적 참여가 활발하며 여가활용을 통해 문화생활을 즐기는 공동체이다. 마지막으로 환경적 조건은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으로 즉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우며 또한 환경이 보호되어 지속가능한 삶을 보장하는 것이다.



[그림 1-1] 삶의 질 측정 만다라

## 나. 영역구성 및 지표

앞에서 살펴본 세 개의 차원에 포함된 각 영역들은 크게 물질적 생활조건과 비물질적 생활조건으로 나눌 수 있다. 물질적 생활조건은 다시 4개의 영역(소득/소비, 고용/임금, 복지, 주거)으로 구분되며, 비물질적 생활조건은 8개 영역(건강, 교육, 가족과 공동체, 문화와 여가, 시민참여, 안전, 환경, 주관적 웰빙)으로 나뉘어진다. 이러한 영역구성은 <표 1-12>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OECD의 Better life index와 거의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한국사회학회, 2011).



〈표 1-12〉 영역 구성 비교

차원	삶의 질 측정	OECD(2011)
물질적 생활조건	소득/소비/자산	Income & Wealth
	고용/임금	Jobs & Earnings
	사회복지	
	주거	Housing
비물질적 생활조건	건강	Health Status
	교육	Education & Skills
	가족과 공동체	Social Connections
	문화와 여가	Work-life Balance
	시민참여	Civic Engagement & Governance
	안전	Personal Security
	환경	Environmental Quality
	주관적 웰빙	Subjective Well-being

각 영역별로 삶의 질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몇 가지 기준에 따라 지표를 선정하였다 (한국사회학회, 2011). 지표는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로 구분되고, 객관적 지표는 삶의 질과의 관련성, 지표의 신뢰성, 포괄성, 비교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영역별로 대표적인 지표들로 선정하였다. 각 단계를 통해서 선정된 지표들은 최종적으로 각 영역 내에서 서로 유사하거나 연관성이 높은 내용을 측정할 경우 가능하면 중복으로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 최종 지표를 선정하였다. 주관적 지표는 각 영역별로 전반적인 만족도를 알아볼 수 있는 지표를 하나 이상 포함하였다.

〈표 1-13〉 관심영역별 지표구성

영역	물질적 생활조건			영역	비물질적 생활조건		
	객관	주관	소계		객관	주관	소계
소득·소비·자산	6	2	8	건강	6	2	8
				교육	8	2	10
				문화·여가	4	2	6
				가족·공동체	7	2	9
				시민참여	2	8	10
고용·임금	3	1	4	안전	7	2	9
				환경	9	2	11
				주관적 웰빙	0	2	2
사회복지	3	0	3	소계	43	22	65
주거	3	1	4				
소계	15	4	19				

〈표 1-14〉 영역별 지표체계

대분류	중분류	객관적 지표(58)	주관적 지표(26)
소득·소비·자산	-	1인당GNI(+), 균등화중위소득(+), 균등화중위소비(+), 가구평균순자산(+), 지니계수(-), 상대적빈곤율(-)	소득만족도(+), 소비생활만족도(+)
고용·입급	-	고용률(+), 실업률(-), 근로자평균근로소득(+)	일자리만족도(+)
사회복지	-	공적연금가입률(+), <b>실업급여수혜율(+)</b> , GDP대비사회복지지출비율(+)	
주거	-	1인당주거면적(+), 주거빈곤가구비율(-), 통근통학시간(-)	전반적주거환경만족도(+)
건강	건강상태	기대수명(+), <b>건강보장수명(+)</b> , 주요만성질환유병률(-), (소득계층별)건강집중(불평등)지수(-)	주관적건강(+), 스트레스인식정도(-)
	건강행위 및 환경	비만율(-), 중등도이상신체활동실천율(+)	
교육	교육기회	유치원취학률(+), 고등교육기관이수율(+), 평생교육참여율(+), 학업중단율(-)	
	교육자원	교원1인당 학생수(-), GDP대비정부부담교육비 비율(+), 학생1인당사교육비지출액(-)	
	교육성과	PISA 백분위순위(-)	학교교육의효과(+), 학교생활만족도(+)
문화·여가	여가시간 및 활용	평균여가시간(+)	여가활용만족도(+), 시간부족에대한인식(-)
	문화활동	1인당평균국내여행일수(+), 문화예술및스포츠관람률(+), 독서인구비율(+)	
가족·공동체	가족관계	가족접촉빈도(+)	가족관계만족도(+)
	가족형태	한부모가구비율(-), 독거노인비율(-)	
	사회적 관계	자살률(-), <b>가까운친구수(+)</b> , 사회적관계망(+)	
	공동체 참여	사회단체참여율(+)	<b>지역사회에 대한 소속감(+)</b>
시민참여	정치참여	선거참여율(+)	<b>정치관심(+)</b> , <b>정치효능감(+)</b>
	시민적 의무	자원봉사활동참여율(+)	<b>시민적 덕목(+)</b>
	시민적 권리		부패인식지수(+), <b>시민적권리인식(+)</b>
	관용 신뢰		<b>이민에대한태도(+)</b> 일반신뢰(+), 기관신뢰(+)
안전	범죄	강력범죄발생률(-), 범죄피해가구(-)	사회안전에 대한 태도(+), 야간보행에 대한 안전도(+)
	사고	도로사망률(-), 아동안전사고사망률(-), 아동학대피해경험률(-), 재해율(-), 화재발생건수(-)	
환경	에너지	신재생에너지비율(+), 에너지빈곤층비율(-)	
	대기	미세먼지농도(-), 오존주의보및경보발령 횟수(-)	
	물	수질오염도(-), 상수도보급률지역별격차(-)	
	폐기물	폐기물재활용비율(+)	
	기후변화	온실가스배출량(-)	
	환경의 질	1인당도시공원/녹지면적(+)	체감환경만족도(+), 환경문제 불안도(+)
주관적 웰빙			<b>삶에 대한 만족도(+)</b> , <b>정서경험의 균형(+)</b>

주: 기율입체의 경우 미생산 및 미비 지표임('12년 기준)



이렇게 해서 전체 12개 영역에서 객관적 지표 58개와 주관적 지표 26개, 총 84개 지표를 최종적으로 선정하였다. 영역별 지표수는 <표 1-13>에 제시되어 있으며, 물질적 생활조건을 구성하는 지표는 19개, 비물질적 생활조건을 구성지표는 모두 65개로 구성된다. 현재의 지표 체계의 경우 해외사례에 비해서 주관지표의 비율이 높은 편이라 할 수 있다.

각 영역별 지표의 구성 체계는 <표 1-14>에 제시되어 있다. 지표선정과정에서 중요한 고려사항 중 하나는 자료의 가득성이라고 할 수 있다. 삶의 질 측정에 있어 중요한 지표라고 하더라도 현재 자료가 구축되어 있지 않으면 실제로 활용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민 삶의 질 측정을 위한 분석틀』 연구의 경우 최종 삶의 질 측정 결과와 산출이 아닌 삶의 질 측정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는데 연구목적이 있었다. 따라서 현재 자료가 생산되지 않더라도 삶의 질 측정에 있어 중요한 지표일 경우 지표체계에 포함하였으며, 향후 신규지표 개발을 통해서 삶의 질 측정의 타당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이러한 과정으로 거쳐 최종으로 구축된 84개 지표 중에는 현재 자료가 생산되지 않는 지표와 생산이 중단된 지표 등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12년부터는 미생산 지표와 생산중단 지표를 보완하고 신규지표를 개발하고자 하는 노력이 주로 이루어져 왔다.

## 2. 미비통계 생산 추진

전체 지표에 대해서 '12년을 기준으로 자료를 수집해 본 결과 84개 지표 중 73종의 지표가 3년 이상의 자료가 구축되어 있고, 11종은 미생산 및 생산중단 지표이다 (<표 1-15>). 주로 가족/공동체나 시민참여 영역의 주관적 지표들 중에 미생산 지표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 미생산 지표의 보완을 위해서 '12년에는 『주관적 웰빙 측정방안』 연구를 수행하였고, 『한국의 사회지표 체계 개편』 연구에 공동연구로 참여하여 해당 지표들이 한국의 사회지표 체계에 신규지표로 포함될 수 있도록 추진하였다.

<표 1-15> 미생산 지표 내역

사유	영역	지표명	비고
미생산 (9종)	주관적 웰빙	삶에 대한 만족도, 정서경험 균형	'13년 사회조사(2종)
	가족·공동체	가까운 친구수, 지역사회 소속감	'13년 사회통합실태조사
	시민참여	정치관심, 정치효능감, 시민적 덕목	(7종)
	시민참여	이민에 대한 태도, 시민적 권리인식	검토 필요
생산중단 (2종)	사회복지	실업급여 수혜율	'10년부터 중단(노동부)
	건강	건강보정수명	'07년부터 중단(OECD)

이러한 신규지표 추진 결과 2013년 통계청 사회조사에서 주관적 웰빙 측정을 위한 항목으로 삶에 대한 만족도(기존 조사항목에서 질문내용 수정)와 정서경험의 균형을 측정하는 항목이 포함되어 조사되었다(그림 1-2).

**6 주관적 만족감**

귀하의 생활을 전반적으로 고려할 때 현재 삶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 1 매우 만족
- 2 약간 만족
- 3 보통
- 4 약간 불만족
- 5 매우 불만족

**7 정서 경험**

귀하는 어제 하루 동안 다음과 같은 감정들을 많이 느끼셨습니까? 각각에 대하여 모두 기입하여 주십시오.

	① 예	② 아니오
1. 즐거움		
2. 평온함		
3. 걱정스러움		
4. 슬픔		

[그림 1-2] 주관적 만족감과 정서경험(통계청 사회조사)

또한 2012년 『한국의 사회지표 체계 개편』 연구결과 사회통합 영역에서 시민참여를 측정하는 주관적 지표 항목들이 신규 지표로 추가되었다. 사회통합 영역의 신규지표를 생산하기 위해서 한국행정연구원에서 2013년부터 신규로 시작하는 ‘사회통합실태조사’에 이들 지표를 생산하기 위한 항목을 반영하였다(그림 1-3)~[그림 1-8]. 이에 따라 미생산 지표 9개 지표 중 7개 지표는 2013년부터 조사결과 활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3** 귀하는 다음의 각 항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1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이 자랑스롭다	①	②	③	④
<input type="checkbox"/> 2 나는 현재 살고 있는 지역(시·도)에 강한 소속감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input type="checkbox"/> 3 나는 내가 대한민국에서 열심히 노력하면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input type="checkbox"/> 4 나는 내 자녀가 대한민국에서 열심히 노력하면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그림 1-3] 지역사회 소속감(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16** 귀하는 다음의 각 항목이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항 목	전혀 중요하지 않다 ←————— 보 통 —————→ 매우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 선거 시 반드시 투표에 참여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세금을 정직하게 납부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법과 규칙을 준수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사회 또는 정치 단체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의견을 존중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조금 비싸더라도 윤리적이고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상품을 구매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국가 위기 시 기꺼이 군복무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그림 1-4] 시민적 덕목(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17** 귀하는 다음의 각 항목에 대하여 얼마나 동의 혹은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항 목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별로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동의도 반대도 하지 않는다	대체로 동의하는 편이다	매우 동의한다
1 나와 같은 사람들은 정부가 하는 일에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다	①	②	③	④	⑤
2 정부는 나와 같은 사람들의 생각이나 의견에 관심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중요한 정치 현안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치 현안과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하여 나보다 더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그림 1-5] 정치관심(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 3. 지표체계의 타당성 검토

미비통계 생산 추진과 더불어 지표체계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1년에 작성된 기존 지표체계에 대해서 내외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타당성 검토를 하였다. 2011년 이후 삶의 질이나 행복 측정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국내외에서도 이를 측정하는 사례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1년에 작성된 지표체계를 전반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지표체계의 타당성 검토는 크게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다. 첫 번째는 내외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지표체계 타당성 검토를 위한 조사를 실시하였고, 두 번째는 내외부 타당성 검토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 지표검토 회의를 진행하였다.

#### 가. 내외부 지표타당성 검토

내외부 타당성 검토는 84개의 지표체계에 대해서 평가기준에 따라 지표의 타당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평가기준은 자료의 질, 적절성, 중립성으로 구분하여 자료의 타당성을 평가하였으며(<표 1-16>), 이러한 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를 합산하여 지표별 점수를 산정하였다.

<표 1-16> 지표의 타당성 평가기준

구분	평가기준	세부내용
자료의 질	신뢰성	지표값이 믿을만한 것인지
	포괄범위	가능한 전체 인구를 포괄
적절성	액면타당도	본래 의도한 바대로 측정할 수 있는 정도
	결과에 초점	투입/과정보다는 산출에 초점이 맞춰져야 함
	이해용이성	모호함없이 쉽게 이해 가능한지
중립성	국내 상황 적합성	우리 사회적 맥락에 부합하는지
	정치적 편견 없음	정치적 편견이 반영되지 않아야 함

주: 시계열, 이용가능성, 방향의 명확성 등은 자료의 수집과정에서 확인가능한 것으로 내부 타당성 검토과정에만 포함하여 평가함

내부 타당성 검토는 전체 84개 지표를 각각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였다. 실업급여 수혜율과 건강보정수명의 경우 현재 생산이 중단되어 추가 검토가 필요한 지표로 이들 지표를 제외하고 전체 총점이 낮은 지표 중 중복되거나, 투입지표이거나 개별 평가항목에서 1점 이하의 점수를 받는 지표를 중심으로 삭제지표를 선정하였다. 평가결과 생산 중단

3) 내부 타당성 검토는 1~3점 척도(1: 부적합 ~ 3: 적합)로 평가하였고, 외부 타당성 검토의 경우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1~5점 척도(1: 매우 부적합 ~ 5: 매우 적합)로 평가하였다.

지표를 포함하여 모두 9개 지표가 삭제검토 후보지표로 선정되었다(<표 1-17>). 교원1인당 학생수와 GDP 대비 정부부담 공교육비 비율 지표는 투입지표고, 건강집중지수와 수질오염도는 자료의 신뢰성이 낮기 때문에 삭제 후보군에 선정되었다. 또한, 이민에 대한 태도는 다른 지표에 비해 삶의 질과의 관련성이 낮고, 가까운 친구수와 시민적 권리 인식은 유사지표가 있기 때문에 삭제 후보군에 포함되었다.

‘수질오염도’ 지표의 경우 전국 수질의 평균 오염도가 아니라 특정 지점에서의 오염도로 측정되기 때문에 이것이 전국을 대표한다고 보기 어렵다. ‘가까운 친구수’의 경우는 현재 구축된 ‘사회적 관계망’과 유사한 내용을 측정하는 지표이고, ‘시민적 권리인식’ 지표는 현재 구축된 ‘시민적 덕목’과 유사한 내용을 측정하고 있다.

<표 1-17> 내부 타당성 평가 결과

차원	검토 지표	문제점
물질적 생활환경	실업급여 수혜율	생산중단 지표
비물질 조건-개인	교원1인당 학생수	투입지표
	GDP 대비 정부부담 공교육비 비율	
	건강보정수명	미생산 지표
	건강집중지수	자료의 신뢰성 낮음
비물질 조건-사회	가까운 친구수	사회적 관계망과 유사
	시민적 권리 인식	이용가능성 낮고, 시민적 덕목과 유사
	이민에 대한 태도	이용가능성, 타당도 낮음
	수질오염도	자료의 신뢰성 낮음, 전국을 포괄하지 않음

외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타당성 평가는 12개 영역별 전문가를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였다. 한 명이 12개 영역의 84개 지표를 모두 파악하여 평가하기 어렵고, 해당 영역만 평가하게 되면 각 영역별 전문가 한 명의 평가결과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12개 영역을 세 개의 차원으로 나누고 한 명이 4개 영역을 평가하도록 하였다. 기존의 물질적 생활조건과 비물질적 생활조건 2개 차원에서 비물질적 생활조건을 개인과 사회·환경적 측면으로 나누어 크게 세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따라서 각 차원별로 네 명의 전문가가 4개 영역을 모두 평가하도록 구성하였다.

평가결과 각 차원별로 총점 평균에서 차이<sup>4)</sup>가 있어 차원별로 전체 총점의 순위를 매겨 낮은 순위 지표에 대해서 삭제검토 지표로 선정하였다. 삭제검토가 필요한 지표는

4) 차원별 평균점수: 물질적 조건 32.2점, 비물질적 조건-개인 33.1점, 비물질적 조건-사회 27.3점임



모두 13개 지표로 이중 5개 지표는 내부 타당성 검토결과 삭제지표와 중복된다(<표 1-18>). 주거, 건강, 가족과 공동체, 시민참여 영역의 지표들이 대부분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주거면적'은 국제비교 시 활용도 높은 지표이나 가구원수의 감소 등으로 인해 삶의 질과의 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주거빈곤가구 비율'은 이해용이성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건강 영역에서 '건강집중지수'는 개념이 명확하지 않으며, '건강보정수명'과 '신체활동 실천율'은 다른 지표와 중복이 되고, 이해용이성과 신뢰성이 낮은 지표이다. 가족과 공동체 영역에서 '가까운 친구수', '사회단체참여율', '지역사회에 대한 소속감'이 낮게 나타났으며, 이들 지표는 모두 액면타당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시민참여 영역에서는 '시민적 덕목', '이민에 대한 태도'가 낮은 점수를 받았으며, 개념이 명확하지 않고 신뢰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표 1-18〉 외부 전문가 타당성 평가 결과

차원	검토 지표		문제점
물질적 조건	1위(29.8점)	1인당 주거면적	국제비교시 활용도는 높으나, 가구원수 감소 등으로 인해 삶의 질과 관련성 낮음
	2위(30.3점)	주거환경 만족도	신뢰성이 낮음
	3위(30.5점)	실업급여 수혜율	복지를 대표하는 지표로 보기 어려움
	3위(30.5점)	주거빈곤가구 비율	이해용이성이 낮으며, 명칭변경 필요
비물질 조건_개인	1위(28.8점)	건강집중지수	개념적으로 명확하지 않음
	2위(31.0점)	건강보정수명	건강상태를 보여주는 지표가 중복되어 있으며, 이해 용이성이 낮음
	3위(31.5점)	신체활동 실천율	비만율과 중복되는 지표이며, 신뢰성 낮음
비물질 조건_사회, 환경	1위(24.5점)	시민적 덕목	개념이 명확하지 않고, 액면타당도가 낮음
	2위(24.8점)	가까운 친구수	규정하는 대상에 따라 응답이 다양할 수 있으며, 액면타당도가 낮음
	3위(25.0점)	사회단체 참여도	액면타당도와 국내상황 적합성이 낮음
	3위(25.0점)	지역사회에 대한 소속감	액면타당도와 국내상황 적합성이 낮음
	3위(25.0점)	이민에 대한 태도	결혼이민과 노동이민의 성격차이가 큼, 신뢰성이 낮음
3위(25.0점)	야간보행에 대한 안전도	사회안전인식과 중복될 수 있으며, 액면타당도가 낮음	

주: 음영으로 표시된 지표는 내부평가의 삭제후보지표와 중복되는 지표임

## 나. 지표검토 전문가 회의

삶의 질 측정 지표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함께 내외부 타당성 검토 결과를 토대로 최종적으로 삭제지표를 결정하고, 삭제지표를 대체할 대안지표를 검토하기 위해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였다. 회의는 각 영역별로 제시된 타당성 검토 결과와 지표의 구축 현황을 토대로 하여 진행되었으며, 각 영역별 검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득·소비·자산 영역은 현재 소득과 자산, 소득불평등, 소득 및 소비만족도를 측정하는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이 영역에서 추가로 필요한 지표는 재정상황이 취약한 가구(적자가구), 가계부채의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가구의 부채를 측정하는데 있어 문제는 절대적인 부채금액이 아니라 자산과 부채의 비율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고소득층의 부채는 투자나 주택구입 등 자산을 늘리기 위한 부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저소득층의 부채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가계의 부채액보다는 자산대비 부채비율로 측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따라서 ‘재정취약가구’ 또는 ‘적자가구’ 지표를 신규로 추가할 필요가 있다.

고용·임금 영역의 지표는 현재 고용률, 실업률, 근로소득, 일자리만족도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이 영역에서 추가로 필요한 지표는 고용의 질이나 직업안정성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이다. 고용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현재 일자리 만족도 지표가 포함되어 있지만, 고용의 질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인 ‘근로시간’ 지표가 빠져있어서 이를 추가로 포함하였다. 그리고 직업안정성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 고려할 수 있는 지표는 ‘비정규직 비율’이나 ‘저임금근로자 비율’이 대표적으로 고려가능하다. 그러나 비정규직 지표의 경우는 시간제 일자리를 강화하는 정책방향과 상충하며, 지표의 방향성 평가에서의 논란과 함께 신뢰할 만한 자료인지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지표이다. ‘저임금 근로자 비율’은 고용의 질과 안정성을 모두 평가할 수 있는 지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영역에서는 ‘저임금근로자 비율’과 ‘근로시간’ 지표를 신규지표로 추가하고, ‘비정규직 비율’ 지표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더 검토한 후 반영하고자 한다. 추가적으로 고용영역에서 필요한 지표 중 하나는 고용상황을 보여주는 현실적인 지표인 ‘NEET족 비율’이다. 그러나 현재 신뢰성 있는 자료를 얻기 힘든 상황이므로 지표로 추가는 하지 않지만, 장기적으로는 검토가 필요한 지표라 할 수 있다.

사회복지 영역의 지표는 공적연금가입률, 사회복지지출비율, 실업급여 수혜율 3개의 지표였으나, 실업급여수혜율 지표가 생산중단됨에 따라 지표에서 제외되어 지표수가 다른 영역에 비해 적은 편이다. 이 영역에서는 의료, 연금, 실업보험 등을 보여줄 수 있는 지표가 필요하다. 따라서 현재 지표에서 구성되어 있지 않은 의료 영역의 복지를 보여주는 지표 중 의료비 중 개인이 부담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인 ‘개인부담의료비 비중’ 지표를 신규로 추가하고자 한다<sup>5)</sup>.



주거 영역의 지표는 주거면적, 주거빈곤가구비율, 통근통학시간, 주거만족도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주거와 관련해서 가장 큰 관심사는 주거비용으로 주거비용은 주거와 관련해서 개인들의 삶의 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이에 주거비용을 측정하는 지표인 ‘소득대비주택가격비(PIR)’, ‘소득대비주택임대비(RIR)’ 지표가 검토될 수 있다. 이들 지표는 주거비용을 측정하는데 있어 대표적인 지표이며, 주택의 절대적인 가격이 아니라 소득대비 가격으로 측정되어 주거비 부담정도를 보여주는 지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주거 영역에서는 이 두 개의 지표 중 ‘소득대비주택가격비’ 지표를 추가하고, ‘소득대비주택임대비’ 지표는 추가 검토 지표로 포함하였다.

건강 영역은 크게 건강상태를 보여주는 지표(기대수명, 유병률, 주관적 건강평가 등)와 건강행위와 환경(비만율, 신체활동실천율)을 보여주는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기존 지표 중 ‘건강보정수명’은 현재 생산되지 않는 지표이고, ‘건강집중지수’의 경우 내외부 타당성 검토 결과 지표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으며, 신뢰성이 낮은 지표로 나타났다. ‘건강집중지수’는 삭제하고, ‘건강보정수명’의 경우 현재 자료가 생산되지는 않지만 삶의 질 측정에 있어서 ‘기대수명’보다 더 중요한 지표이고, 현재 지표를 생산하고자 하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지표체계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하였다. 신규로 추가하는 지표는 건강 불평등을 보여줄 수 있는 지표로 ‘의료미충족률’과 건강상태를 보여주는 지표인 ‘암생존률’ 지표를 포함하였다. 기대수명이 증가하면서 암 발생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있으므로 암발생에 대한 지표보다 치료정도를 보여주는 ‘암생존률’ 지표를 선택하였다.

교육 영역은 크게 교육기회, 교육자원, 교육성과를 보여주는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내외부 타당성 검토 결과 ‘교원1인당 학생수’와 ‘공교육비 비율’ 지표는 전형적인 투입 지표로 삶의 질과의 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삭제하였다. 신규로 추가검토가 필요한 지표는 교육의 성과를 보여주는 지표로, ‘대졸생 취업률’ 지표를 추가하였다<sup>6)</sup>. 또한 학습동기나 학생들의 수면시간을 보여줄 수 있는 지표 등을 추가로 검토하고자 한다.

문화와 여가 영역은 여가시간 및 활용, 문화활동과 관련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기존 지표 중 ‘독서인구 비율’ 지표는 삶의 질 측정에 있어 큰 의미가 없는 지표로 삭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영역은 다른 영역보다 실제로 활용가능한 대안지표가 그리 많지 않다. 따라서 문화와 여가활동을 포괄적으로 보여주는 ‘문화여가지출 비율’ 지표를 신규로 포함하였다. 그리고 해외여행 비율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해외여행횟수’ 지표를 추가로

5) 복지영역에서 외부 타당성 검토 의견 중 ‘보육시설 이용률’ 지표의 추가와 관련해서는 이 지표의 경우 보육과 관련된 지표로 복지 영역에 포함되기에는 세분화된 지표임으로 복지 영역에서 포함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음.

6) ‘대졸생 취업률’ 지표의 경우 기존의 자료는 대학에서 입력되는 자료로 신뢰성이 보장되지 않아서 지표로 포함하지 않았었는데 최근 건강보험공단 DB와 연계되어 직장의료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여 자료를 산출함에 따라 자료의 신뢰성이 높아짐.

검토해 보고자 한다.

가족·공동체 영역은 가족관계 및 형태, 그리고 사회적 관계와 공동체 참여 관련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이 영역의 지표 중 ‘가까운 친구수’ 지표와 ‘사회적 고립’은 유사한 지표이므로 이 중 타당성 평가점수가 낮은 ‘가까운 친구수’ 지표를 삭제하였다. 이 영역에서 중요한 지표는 일-가정 균형을 보여줄 수 있는 지표이다. 그러나 현재는 활용가능한 지표가 없어 지표체계에 포함할 수는 없으나, 검토지표에 포함시켜 향후 추가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시민참여 영역은 현재 정치 참여와 시민적 의미, 신뢰 관련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시민참여 영역의 경우 다른 영역보다 활용가능한 지표가 매우 적으며, 주관적 지표의 비율이 매우 높은 영역이다. 기존 지표 중 타당성 검토 결과 중요도가 낮은 지표로 나타났던 ‘시민적 권리인식’과 ‘이민에 대한 태도’ 지표는 삭제하였다. 그리고 추가로 신규 지표는 포함하지 않았다.

안전 영역에서는 현재 범죄와 사고 관련 지표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외부 타당성 검토 결과에서 가정폭력 관련 지표와 자연재해 관련 지표의 추가가 의견으로 제시되었다. ‘가정폭력’ 관련 지표의 경우 현재 산출되는 자료가 신뢰성이 낮아서 지표로 활용하기에는 문제가 있으며, ‘자연재해’ 관련 지표의 경우 변동폭이 크고, 실제 노력정도와 상관없이 자연현상에 따라 영향을 크게 받으므로 지표로 포함하는데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환경 영역의 경우 에너지, 대기, 물, 폐기물, 기후변화, 환경의 질 관련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기존 지표 중 ‘수질오염도’ 지표의 경우 전국을 포괄하지 않는 지표임으로 삭제하였고, ‘상수도보급률 격차’ 지표는 현재 상수도 보급률이 거의 100%에 가까워 변별력이 낮으므로 지표에서 제외하였다.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지표로 ‘하수도보급률 격차’ 지표를 신규로 포함하였다. 하수도는 상수도보다 보급률이 낮으며, 수질오염 발생과 관련이 높은 지표로 이를 대체하기에 적합한 지표이다. 그리고 기존 지표 중 기후변화와 관련된 지표가 세 개(신재생에너지 비율, 온실가스 배출량, 환경문제 불안도)나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들 지표 중 삶의 질 관점에서 가장 거리가 먼 ‘신재생에너지 비율’ 지표를 삭제하였다.

마지막으로 주관적 웰빙 영역의 경우는 현재 포함된 지표인 삶에 대한 만족도와 정서경험이 가장 핵심적인 지표이다. 다만 OECD의 『주관적 웰빙 측정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고 있는 핵심항목에서 유데미니아 측정 지표<sup>7)</sup>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 지표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검토한 결과 최종적으로 기존의 84개 지표 중 11개 지표를 삭제하였고, 10개의 신규지표를 포함하여 최종 83개 지표로 확정하였다(<표 1-19>).

7) 자신의 삶이 얼마나 가치가 있다고 느끼는 정도로 측정하고 있음.





또한 추가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7개 지표에 대해서는 자료의 신뢰성과 산출가능성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표 1-19〉 지표체계 변경내용(안)

영역	삭제지표(11)	추가지표(10)	추가검토지표(7)*
소득·소비 · 자산		· 재정취약가구	
고용·임금		· 근로시간 · 저임금근로자 비율	· 비정규직 비율
사회복지	· 실업급여수혜율	· 개인부담의료비 비중	
주거		· 소득대비주택가격비	· 소득대비주택임대비
건강	· 건강집중지수	· 의료미충족률 · 암생존률	
교육	· 교원1인당학생수 · GDP대비공교육비비율	· 대졸생 취업률	· 학습동기(흥미) · 학생의 수면(여가)시간
문화·여가	· 독서인구 비율	· 문화여가지출 비율	· 해외여행횟수
가족· 공동체	· 가까운 친구수		· 일-가정 균형 지표
시민참여	· 시민적 권리 인식 · 이민에 대한 태도		
환경	· 상수도보급률격차 · 수질오염도 · 신재생에너지 비율	· 하수도보급률 격차	
주관적 웰빙			유데모니아

\* 추가검토지표는 지표정의, 산식, 자료 신뢰성을 검토하여 추가 여부 결정

#### 4. 추진방안에 대한 의견수렴

삶의 질 측정을 위한 미비지표의 생산추진, 측정 지표의 타당성 제고에 대한 작업이 추진됨에 따라 측정결과 활용 및 향후 추진방안에 대한 모색이 이루어졌다. 이는 포럼을 통해 이루어졌는데, 「제3회 국가통계 발전포럼」에서 별도의 세션 “국민 삶의 질 측정 방법과 도전과제”를 구성하고 12월에는 별도의 포럼을 마련하여 쟁점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논의의 주된 쟁점은 삶의 질 측정에 있어 지표체계뿐 아니라 어떻게 지표를 구축하고 측정해야 하는지, 어떻게 공표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통계청은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 등이다.

'13년 6월에 개최된 국가통계 발전포럼에서 주요 논의사항은 국제비교보다는 국내의 국민 삶의 질을 효과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지표개발이 필요하며, 나아가 영역 간 및 지표 간 관계 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표선정방법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하향식(top-down) 방식에서 벗어나 일반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상향식(bottom-up)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그리고, 삶의 질 측정에서 통계청은 종합지수(composite index)를 작성하기보다 양질의 결과(outcome) 지표를 생산하는데 주력해야 한다는 논의가 지배적이었다.

〈표 1-20〉 국가통계 발전포럼 주요 논의사항

주제발표	주요 논의사항	향후 조치계획
삶의 질 : 역사와 개념	한국형 '삶의 질' 지표 필요	○ 한국사회의 특성을 보여주는 연구 추진 - 개별지표뿐만 아니라 영역 간, 지표 간 관계 분석
삶의 질 측정 : 쟁점과 도전과제	지표선정 방법	○ 전문가 집단을 통해 선정한 후 민간의 의견수렴
	통계청의 역할	○ 삶의 질 측정에 필요한 outcome 중심의 기초통계자료 개발하는 데 주력

한편, 12월 연말에 추진된 별도의 “국민 삶의 질 측정의 현황과 추진방향” 포럼에서는 현재 통계청에서의 ‘삶의 질 측정 추진현황과 쟁점’과 ‘해외사례의 시사점’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이를 토대로 삶의 질을 어떻게 측정하고, 결과물이 어떻게 산출되어야 하는지, 이 과정에서 통계청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첫째,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표선정의 주체에 대해 우선 가칭 ‘지표검토위원회’와 같은 중립적인 역할을 하는 기구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적인 검토를 거쳐 중립적인 검토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것에 대한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기존의 하향식 지표선정방식에서 벗어나 상향식을 포함하는 혼합식(hybrid)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위해 지표선정 과정에 다양한 집단의 의견수렴(예, 온라인 참여 등)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둘째로, 삶의 질 측정에서 국가통계청의 역할과 관련해서 국내 삶의 질 측정의 통합적 관리 및 조정 역할 수행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 국내에서 인구집단(청소년, 농민, 노인,



여성 등)별 혹은 광역단위의 지역 측정, 생활영역(안전, 소비 등) 등에 대해 통합적 관리 및 조정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 그리고, 국가통계청은 종합지수를 산출하기보다는 지표에 대한 자료를 생산 및 제공해주는 역할에 주력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그 이유로는 통계청이 종합지수를 산출할 경우 가중값 부여를 두고 정치적인 논란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표자료 제공에 주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종합지수 작성 여부와 관련해서는 작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통계청의 지수작성이 어렵다면 민간에서라도 종합지수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지수화하지 않을 경우, 지표나열(suite of indicators) 형식의 경우 가독성이 떨어지고 일반 국민의 이해도와 체감 정도가 낮을 수 있어 종합지수 형태의 결과물 산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의 바람직한 추진추체와 가중치 부여 방법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토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넷째, 지표나열 형태의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신뢰성 있는 자료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의 형성되었다. 해외사례를 참조하여 온라인 제공, 신호등 및 계기판 방식의 통계표 제공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되었다.

끝으로, 삶의 질 과제의 발전방향에 대해 타당한 삶의 질 측정이 가장 핵심이며, 이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인 공론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논의의 폭을 넓히고, 결과물 산출보다는 앞으로의 변화에 대비해서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 제4절 결론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웰빙’ 혹은 ‘삶의 질’ 측정이 국가통계청의 중요한 업무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다. 앞서 해외 사례에서 보았듯이 진척의 정도나 추진주체에서 다소간의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이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도 2009년부터 내부연구를 시작하였고, 2011년에 한국사회학회와 공동연구를 통해 보다 체계적인 측정틀을 구축하고 이후에 필요한 지표통계를 구축하는 등 지속적인 보완을 해왔다.

올해에는 세 가지 측면에 주안점을 두고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였다. 첫째, 지표체계에 포함되어 있으나 미비된 지표통계를 생산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주로 통계청 ‘사회조사’를 통해 주관적 웰빙 측정항목, 그리고 한국행정연구원의 ‘사회통합실태조사’를 통해 시민참여 영역의 지표생산을 추진하였다. 2013년 이들 9종의 신규지표 자료가 처음으로 생산되었고 향후 매년마다 생산될 예정이다.

둘째로 본 과제의 핵심적 쟁점이 측정의 타당성 및 적절성에 대한 것이다. 특히, 올해에는 '11년에 구축한 지표체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수행하였다. 이 일은 향후 연구결과의 공표를 염두에 두고 추진된 것이다. 연구진 내부 검토, 영역별 외부 전문가 검토 및 전체적인 검토를 모두 진행하고 최종지표 구성안을 결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향후 추가 생산이 필요한 지표도 예비 후보지표로 발굴되었다. 향후 이들 지표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생산가능성 검토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추진과정에서 향후 '삶의 질 측정' 과제의 쟁점과 향후 추진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노력도 동시에 추진되었다. 이는 국가통계 발전포럼에 별도의 세션을 구성하여 쟁점별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였고, 또한 본 과제만을 위한 별도의 포럼을 개최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향후 추진방향을 모색하였다. 이 과정에서 본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통계청 역할과 범위 설정, 주된 역할 및 역할 수행 방법 등에 대한 방향을 설정할 수 있었다.

약 3년여 동안 지속된 일련의 연구과정을 거쳐 '국민 삶의 질 측정' 프로젝트는 이제 부분적인 공개나 서비스가 가능한 수준에 도달하였다. 물론, 아직도 해결해야 하는 많은 과제가 남아 있는 것이 현실이다. 향후 본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함에 있어 몇 가지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나 추진방향과 관련된 사항을 언급하고자 한다.

우선 지표선정과정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이는 의견수렴과정과 지표검토위원회 운영으로 나눠서 볼 필요가 있다. 첫째, 지표의 결정과정에서는 추진주체와 정부기관, 학자 및 전문가 집단뿐 아니라 NGO와 시민들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그 방법도 공청회, 포럼과 같은 방법뿐만 아니라 온라인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전문가 중심의 지표선정으로 향후 이 과정을 추가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를 추진하는 실질적 방법에 대해서도 검토가 요구된다. 둘째, 지표검토위원회 운영이 필요하다. 사실 현재의 국민 삶의 질 측정 지표체계는 최선이라기보다는 현실적 활용가능성을 고려한 차선책이다. 따라서, 지속적인 보완과 추가 지표발굴이 필요하다. 이를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보다 독립적인 가칭 '지표검토위원회'와 같은 기구가 필요하다. 이를 어떻게 구성하고 운영할 것인가는 향후 해결이 필요한 쟁점이다.

끝으로, 본 연구성과의 활용과 관련된 쟁점이 남아 있다. 통계청의 역할범위와 관련 '좋은 지표의 생산과 제공'으로 그 기능에 한계가 있다. 이와 관련 생산된 지표를 어떻게 제공하고, 나아가 민간영역에서 종합지수를 산출하게 할 것인가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우선, 지표정보 제공방법은 해외사례 검토를 통해 서비스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종합지수를 산출하지 못하는 통계청의 입장에서



어떻게 가독성과 간결성을 유지하며 결과를 서비스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지표들의 개선정도를 보기 쉽게 보여주는 신호등 방식의 요약이나 대화형 그래프를 제공하는 경우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방식은 사용자 측면에서 제공 자료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지표를 가공하여 지수를 작성하도록 유도하는 작업도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추가적인 노력을 통해서 ‘국민 삶의 질 측정’ 과제는 국민 삶의 질 정책 추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국가미래연구원(2013), “국민행복지수” 2013년 7월, 정책자료.
- 한국사회학회(2011), 국민 삶의 질 측정을 위한 분석틀, 연구용역보고서.
- 한국조세연구원(2012), 「복지지표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 European Commission(2009), “GDP and beyond - Measuring progress in a changing world” from the European Commission[COM(2009) 433].
- OECD(2011), 「How’s Life」 .
- Stiglitz, Joseph E., Amartya Sen & Jean-Paul Fitoussi(2009), Report by the Commission on the Measurement of Economic Performance and social Progress.

### <홈페이지>

- 뉴질랜드 Quality of Life Project, <http://qualityoflifeproject.govt.nz>
- 캐나다 Canadian Index of Wellbeing(CIW),  
<http://u.waterloo.ca/canadian-index-wellbeing>
- 영국 Measure of National Well Being(MNWB),  
<http://www.ons.gov.uk/ons/guide-method/user-guidance/well-being/index.html>
- 부탄 Gross National Happiness(GNH), <http://grossnationalhappiness.com>
- 네덜란드 Life Situation Index (LSI), <http://www.scp.nl/english/>
- 아일랜드 Measuring Ireland’s Progress(MIP),  
<http://www.statcentral.ie/viewStat.asp?id=191>
- 중국 Hong Kong Quality of Life Index,  
<http://www.cuhk.edu.hk/ssc/qol/eng/hkqol.html>
- 호주 Australian Unity Well Being Index,  
<http://www.australianunity.com.au/about-us/Wellbeing/>
- 호주 Measures of Australia’s Progress(MAP),  
[http://www.abs.gov.au/ausstats/abs@.nsf/Lookup/by%20Subject/1370.0~2010~Main%20Features~Home%20page%20\(1\)](http://www.abs.gov.au/ausstats/abs@.nsf/Lookup/by%20Subject/1370.0~2010~Main%20Features~Home%20page%20(1))
- 이탈리아 Benessere Equo e Sostenibile(BES),  
<http://www.misuredelbenessere.it/index.php?id=48>
- 스위스 MONET Indicator System,  
<http://www.bfs.admin.ch/bfs/portal/en/index/themen/21/02/ind9.approach.903.html>



영국 National Accounts of Well-Being(NAWB),

<http://www.nationalaccountsofwellbeing.org>

핀란드 Findicator,

<http://www.findikaattori.fi/en>

오스트리아 How's Austria (Wie geht's Osterreich?),

[http://www.statistik.at/web\\_en/statistics/hows\\_austria/](http://www.statistik.at/web_en/statistics/hows_austria/)

## <부 록>

### 1. 해외 삶의 질 및 웰빙 측정 사례

#### 1) 뉴질랜드 Quality of Life Project

추진주체	웰링턴, 오클랜드, 크라이스트처치, 더니든 시 의회(City Council)의 삶의 질 연구팀
참여주체	포리루아, 헛 시의 의회 및 매회 참여도시의 시의회
시작년도	1999년
범위	뉴질랜드 도시
지표체계	영역 11개, 중심지표 68개, 개별척도 168개(매 회 조금씩 수정)
지표선정자	삶의 질 연구팀, 통계청, 영역별 전문가, 지표 전문가
추진단계	보고서 공표
결과물	지표나열법(주로 지역별, 일부 인종별/시계열/연령별), 온라인 대화형 그래프

#### ○ 주 체

뉴질랜드의 지방정부 시의회에 속하는 4가지 부문(metropolitan group, provincial group, rural group, regional group) 중 12개의 도시로 이루어진 대도시부문(metropolitan group)에서 4개의 대도시인 웰링턴, 오클랜드, 크라이스트처치, 더니든 시 의회가 1999년에 모여서 삶의 질 연구팀(Quality of Life Research Team)을 만들었다. 이들은 대도시부문의 행정의회의 후원을 받으며 포리루아, 헛 시 등 매회 추가로 참여하는 도시에 따라 시의회의 구성이 변경된다.

#### ○ 연 혁

- 1999년 프로젝트 시작
- 2001년 여섯 개 도시의 삶의 질 보고서(Quality of Life in New Zealand's Six Largest Cities) 발행
- 2002년 설문결과보고서(Quality of Life in New Zealand's Eight Largest Cities 2002) 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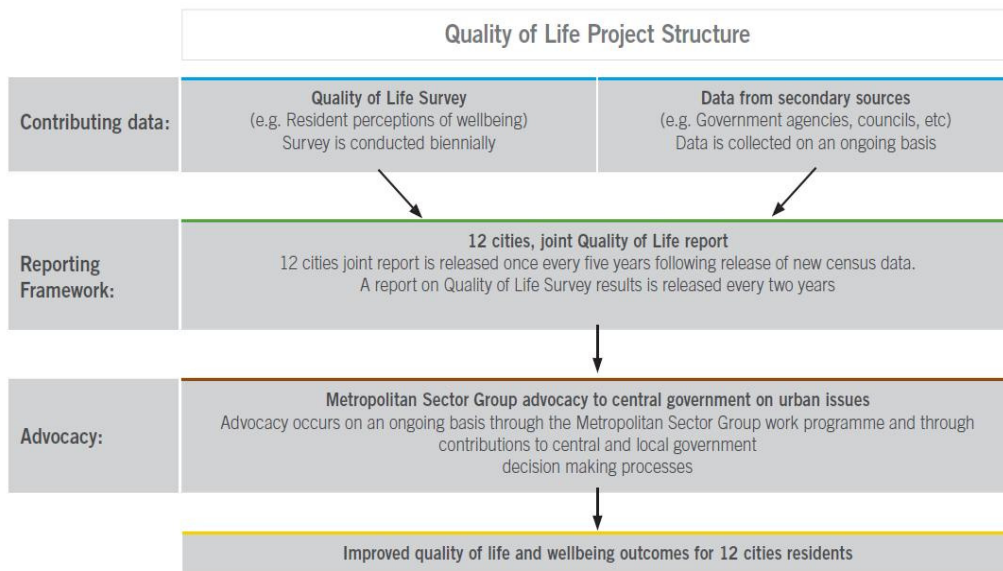




- 2003년 여덟 개 도시의 삶의 질 보고서(Quality of Life in New Zealand's Eight Largest Cities) 보고서 발행
- 2005년 설문결과보고서(Quality of Life in New Zealand's Largest Cities - Residents Survey 2004) 발행
- 2007년 설문결과보고서(Quality of Life Survey 2006 National Report) 발행
- 2007년 열두 개 도시의 삶의 질 보고서(Quality of Life in Twelves of New Zealand's Cities) 발행
- 2009년 설문결과보고서(Quality of Life Survey 2008 National Report) 발행
- 2011년 설문결과보고서(Quality of Life Survey 2010 Eight Cities Report) 발행
- 2013년 설문결과보고서(Quality of Life Survey 2012 Six Councils Report) 발행

○ 프로젝트 진행과정 및 흐름

- 1) Monitoring conditions: 사회, 경제, 환경 변화를 정량화하고 관찰할 수 있는 지표와 영역별 발전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선정한다.
- 2) Report on findings: 흐름 및 문제점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분석한다.
- 3) Advocating for improvement: 보고서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해결하고 정책적인 변화를 만든다.



[부그림 1-1] 뉴질랜드 삶의 질 프로젝트 진행과정

○ 목적 및 목표

- 주요목적  
의사결정자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뉴질랜드 주요도시의 삶의 질 개선을 도모한다.
- 목표
  - 1) 참여도시들이 일관성 있는 지표와 관찰기법을 사용한다.
  - 2) 도시문제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대비한다.
  - 3) 중앙정부에 도시문제의 전반적인 사항을 제시한다.
  - 4) 삶의 질 문제를 공표하고 도시문제를 관찰하기 위해 대도시가 협동하여 일한다.
  - 5) 도시 관찰을 위해 참여 시 의회가 일관성 있는 지표를 만들 수 있게 하고 도시문제 및 동향을 밝히고 적합한 대처를 할 발판을 마련한다.

○ 측정틀

지방자치법에 따라 작성된 각 도시의 장기의회지역사회계획(Long Term Council Community Plans), 중앙정부의 기회전략(Opportunity for All New Zeland), 경제변화의제(Economic Transformation Agenda),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for New Zealand), 사회발전부의 사회보고서(Social Report) 등의 보고서에 포함되어 있는 영역 및 측정틀을 참고하여 본 삶의 질 측정틀을 만들었다. 또한 지방자치법에 나온 사회/문화, 경제, 환경 웰빙에 대한 11개의 분야를 참고하여 영역을 구성하였다.

- 영역구성: 인구(people), 지식과 기술(knowledge and skills), 건강(health), 안전(safety), 주거(housing), 사회적 연결망(social connectedness), 시민과 정치적 권리(civil and political right), 경제적 삶의 표준(economic standard of living), 경제발전(economic development), 자연환경(the natural environment), 인공환경(built environment)

○ 지표선정과정

- 지표선정자  
삶의 질 연구팀, 통계청, 영역별 전문가, 지표 전문가
- 지표선정기준
  - 1) Relevant: (뉴질랜드의 사회, 환경 경제적 부분과의) 관련성
  - 2) Measurable: (존재하는 자료로 정량화 할 수 있는) 측정가능성
  - 3) Cost effective: (시간,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가격에 얻을 수 있는) 비용 효율성



- 4) Valid: (문제를 실질적으로 반영/측정하는; 과학적으로 신빙성 있거나 논리적으로 옹호할 수 있는) 유효성 및 타당성
- 5) Comparable: (표준화 할 수 있거나 비슷한 지표로 정확히 비교할 수 있는) 비교가능성
- 6) Understandable: (단순하고 흥미를 유발하는 구조로 표현 가능한) 명료성 및 이해용이성
- 7) Responsive: (변화하는 조건에 즉각 반응하는) 민감성
- 8) Time related: (반복 가능하고 시간에 따라 흐름이 있는) 시의성
- 9) Disaggregation: (인구 속성등에 의해 쉽게 분해/분리 되는) 인구집단별 분해가능성
- 10) Leading/lagging: (이른 지표로 변화를 예측하고 미리 경고하거나 지난 시점의 지표로 효과 및 결과를 보이는) 선행/지행성

#### ○ 결과물

- 주요보고서 Quality of Life in Twelve of New Zealand's Cities (2012)
  - 1) 프로젝트 과정 및 주요 결과 설명
  - 2) 지표나열법: 주로 도시의 지표 값 비교, 일부 인종별, 시계열, 연령별 비교
- 웹사이트 <http://qualityoflifeproject.govt.nz>
  - 1) 설문조사보고서 및 웰빙보고서 내려받기 링크
  - 2) 5개 지표에 대한 대화형 그래프

#### ○ 결과물 활용 방안

삶의 질 연구팀은 설문조사결과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책입안자에게 정보를 알려주는데 도움이 될 것이고 그 정보가 사회, 문화, 경제 목표를 향한 발전에 전략적으로 집중하는 도시에서 특히 유용하게 쓰일 것이라고 예상한다. 2003년 보고서가 발간된 뒤, 대도시부문의 다섯 개 문제(교통, 경제개발, 커뮤니티 안전, 커뮤니티 웰빙, 쓰레기 처리)가 정의되었다. 그 이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과제들이 생겨났고 삶의 질 연구팀은 경제발전 전문가들을 위해 온라인으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각 시의회에서는 커뮤니티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살피기 위해 장기의회지역사회계획을 수정하였다.

○ 통계청의 역할

뉴질랜드 통계청은 정부기관이 소유한 국가하위지역정보를 검사 및 감사하는 일을 한다. 또한 지방정부, 정부부처, 삶의 질 팀 등과 함께 일하면서 척도와 지표의 핵심을 만들고 지방정부가 그 지표를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 2) 캐나다 Canadian Index of Wellbeing(CI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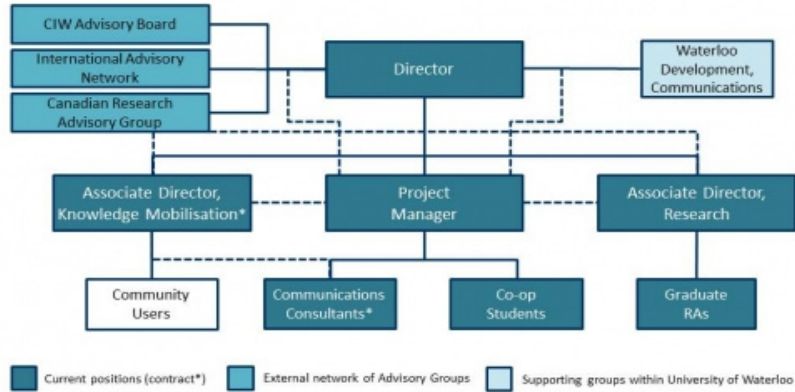
추진주체	CIW 내부 네트워크
참여주체	CIW 외부 네트워크 (고문위원회, 국외전문가그룹, 연구자문위원회, 학내그룹)
시작년도	1999년
범위	캐나다
지표체계	영역 8개, 지표 64개
지표선정자	CIW 내·외부 네트워크
추진단계	보고서 공표
결과물	지수 및 지표나열법(시계열), 신호등

### ○ 주 체

캐나다의 CIW는 워터루 대학의 응용보건학부를 중심으로 한 CIW 네트워크 그룹에 의해 삶의 질 과제가 수행되고 있다. 참여 외부 네트워크로는 CIW 고문위원회(CIW Advisory Board), 국외전문가그룹(International Advisory Network), 연구자문위원회(Canadian Research Advisory Group), 학내그룹(Waterloo Development, Communication)이 있다.

- 캐나다인의 전문인으로 구성된 CIW고문위원회는 CIW 책임연구원에게서 자문을 해주고, 미디어 및 정부관련 일들을 지원해준다. 또한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지지하고 기금모금 기회를 증가시킨다.
- 국외전문가그룹은 CIW의 국제적인 업무를 지원하고 다른 삶의 질 개발주체와 연결을 주도한다.
- 연구자문위원회는 캐나다인의 연구원, 전문인, 기술인으로 구성되며 영역 및 지표 등의 자문을 담당하고 자료수집과 보고서 준비를 돕는다. 또한 미래개발 분야에 대해서도 조언한다.
- 학내그룹은 워터루 대학교 내의 지원그룹이다.

CIW 재원그룹은 Atkinson Charitable Foundation, Royal Bank of Canada (RBC) Foundation, Province of Ontario, The Lawson Foundation, The J.W. McConnell Family Foundation, Canadian Council on Learning, University of Waterloo이다.



[부그림 1-2] 캐나다 CIW 내/외부 네트워크

○ 연 혁

- 1999년 Atkinson Charitable Foundation이 캐나다 전역의 지수(Index) 전문가 및 캐나다 통계청을 소집.
- 2000년 ACF가 Canadian Policy Research Networks(CPRN)의 프로젝트인 “Asking Citizens What Matters for Quality of Life” 프로젝트를 지원.
- 2001년 CPRN과 함께 ACF가 삶의 질 지표(Indicators of Quality of Life in Canada: A citizen's Prototype)를 만들.
- 2002년 ACF가 캐나다 전역에서 지표(Indicator) 전문가와 기술자를 소집.
- 2004년 ACF가 national working conference를 진행. 여기서 주요 참여자들이 나중에 연구자문위원회인 Canadian Research Advisory Group(CRAG)를 만드는데 도움을 줌.
- 2005년 CRAW가 첫 다섯 개의 영역 작업을 시작.
- 2006년 첫 번째 원탁회의로 EKOS Research Associates가 14개의 커뮤니티에서 19개의 포커스 그룹을 만들어서 CIW 개념에 대해 토의. ACF가 NGO와 정부기관을 모아서 워크숍을 진행.
- 2007년 두 번째 원탁회의로 Capacity Strategic Networks가 캐나다 전역에서 측정들에 대한 의견을 들음.
- 2008년 토론토에서 소규모로 세 번째 공공회의가 열림. 영역관련 보고서와 종합지수관련 회의를 함.
- 2009년 첫 세 개의 도메인인 생활수준, 건강한 인구, 공동체 활력 보고서 발간. 특별보고서인 The Economic Crisis through the Lens of Economic Wellbeing과 How are Canadians Really Doing? A Closer Look at Select Groups 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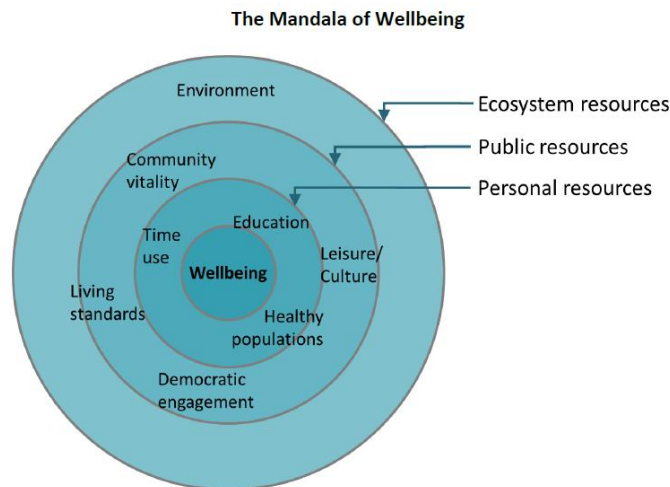
- 2010년 다른 네 영역인 민주적 참여, 시간사용, 레저와 문화, 교육 보고서 발간. 특별보고서인 Caught in Time Crunch: Time Use, Leisure and Culture in Canada 발간.
- 2011년 CIW가 워터루 대학의 응용보건학부로 이동. 환경영역 보고서 발간. 10월에 처음으로 종합지수 만듦.
- 2012년 City of Guelph에서 CIW Subjective Wellbeing Survey 주최. 두 번째 How are Canadians Really doing 보고서 발간.

○ 목 적

다차원 구조인 사람의 웰빙을 합리적이게 표현하는 1차원적(표면적)인 지수를 작성

○ 측정틀

웰빙 만다라로 불리는 CIW의 웰빙 측정틀은 8개의 영역과 웰빙의 관계를 보여준다. 웰빙을 둘러싼 세 개의 원은 인간이 웰빙을 위해 사용하는 자원들을 의미한다. 만다라 중심에서 웰빙과 근접하게 있는 원은 개인적 자원으로 시간사용, 교육, 건강영역이 들어 있다. 두 번째 원은 공적자원으로 공동체 활력, 생활수준, 여가 및 문화, 민주적 참여가 포함된다. 가장 외부에 있는 세 번째 원은 환경영역을 포함하고 있는 생태체계자원으로 다른 원들과 영역들 모두에게 영향을 주어 가장 포괄적이다.



[부그림 1-3] 캐나다 CIW 웰빙 만다라

○ 지표선정과정

- 지표선정자  
CIW의 내·외부 네트워크
- 지표선정기준
  - 1) 주요 타겟층의 관심사와의 관련성
  - 2) 이해용이성
  - 3) 신빙성, 타당성, 변화민감성
  - 4) 정치적 중립성
  - 5) 시의성, 이용가능성, 정기성
  - 6) 인구집단별 비교가능성
  - 7) 객관 또는 주관
  - 8) 긍정 또는 부정
  - 9) 웰빙의 구성요소 또는 결정요소
  - 10) 활성/비활성적인 개인이나 그룹의 특성반영
  - 11) 공개적이고 투명하고 민주적인 자문검토절차를 거쳐 작성
  - 12) 웰빙에 대한 일관성있고 포괄적인 시각에 기여
- 지표선정절차  
먼저 내·외부 네트워크의 전문가 단체가 웰빙모형을 작성한다. 그 후 일반시민 및 이해당사자와의 공공회의를 열어 조언을 받는다. 이에 따라 전문가 단체가 모형을 수정한 뒤 일반시민 및 이해당사자에게 피드백을 받고 다시 모형을 수정한다.

○ 결과물

- 주요보고서 How are Canadians Really Doing? (2012)
  - 1) 프로젝트 개념 및 측정틀 설명
  - 2) 종합지수 및 영역별 종합점수(시계열)
  - 3) 지표의 지난 조사결과 대비 변화(신호등)
- 웹사이트 <http://u.waterloo.ca/canadian-index-wellbeing>
  - 1) 보고서 제공
  - 2) 측정틀 및 영역 설명
  - 3) 종합지수 및 영역별 종합점수(시계열)
  - 4) 지난 조사결과 대비 변화(신호등)





### ○ 결과물 활용 방안

웰빙을 지원하는 정부의 여러 부서 및 기타 기관에서 CIW를 정책적 결정에 중요한 기반으로 사용할 수 있다. 8개의 영역과 전체지수를 사용한 전체적 접근은 웰빙 개선 시도 시 특히 많은 노력이 요해지는 분야를 효율적으로 찾을 수 있도록 한다. CIW는 인구하위집단별, 지역별 등으로 분석 가능하고 종합지수는 각 영역이 웰빙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다. 따라서 서로 다른 그룹(인구, 지역 등)이 발전 전략과 정책의 미흡함을 서로 공유하여 협동할 수 있게 하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 3) 영국 Measuring National Well-being(MNWB)

추진주체	영국 통계청(ONS,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시작년도	2010년
범위	영국
지표체계	영역 10개, 주요지표 40개(전체 지표 개발 예정)
지표선정자	영국통계청(전문가, 시민, 학자 등에게 자문을 받음)
추진단계	보고서 공표
결과물	지표나열법(주로 시계열, 일부 인구속성 및 지역비교), 자료 값 제공, 온라인 대화형 활·그래프·지도

#### ○ 주 체

영국의 Measuring National Well-being 연구는 국가통계청인 ONS에서 진행된다.

#### ○ 연 혁

- 2010년 11월 ‘무엇이 중요한가’라는 주제로 국내토론을 시작
- 2011년 4월까지 전국적으로 175개의 토론 이벤트가 개최됨.
- 2011년 9월 Measuring What Matters: National Statistician's Reflections on the National Debate 발행
- 2011년 10월 영역 및 지표의 초안을 공표
- 2012년 1월까지 대중의 자문을 받음
- 2012년 2월 Our relationships 영역 보고서 발행, 3월 What we do 영역 보고서 발행, 7월 Education and skills, Where we live, Health 영역 보고서 발행
- 2012년 7월 수정된 영역 및 지표를 공표(Measuring National Well-being - summary of proposed domains and measures, Report on the Consultation on Proposed Domains and Measures 보고서 발행)
- 2012년 9월 Personal finance 영역 보고서 발행, 10월 The Economy, Governance 보고서 발행, 11월 The Natural Environment 보고서 발행
- 2012년 11월 Life in the UK 보고서 발행
- 2013년 1월 Review of available sources and measures for children and young people's well-being 보고서 발행, 2월 Household satellite accounts valuing informal childcare in the UK 보고서 발행, 3월 Older people's neighborhoods 보고서 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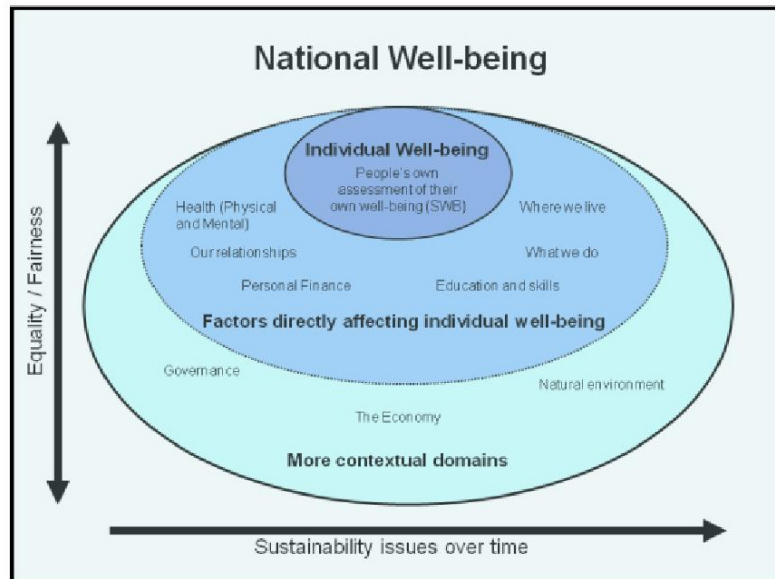
4월 Older people's leisure time and volunteering, older people and loneliness 보고서 발행

○ 목 적

믿을 수 있고 안정된 국가통계를 만들고 공표하여 웰빙을 이해하고 관찰하기 위함

○ 측정틀

MNWB 웰빙 측정틀은 국가 웰빙을 이해함에 있어서 개인의 관점에서부터 사회 전반까지 어떤 영역이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도표로 작성한 것이다. 가장 안쪽에 위치한 원은 개인적 웰빙을 가리키며 주관적 웰빙이 영역으로 포함되어 있다. 그 원을 감싸는 중간 원은 개인적 웰빙을 변화시키는 요소들을 정리한 것으로 건강, 관계, 교육 등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장 큰 원은 맥락적 영역으로 경제, 거버넌스, 환경 등이 있다. 즉, 개인적 웰빙과 그 개인적 웰빙을 변화시키는 요소, 그리고 맥락적 요인을 통하여 국가 웰빙을 파악할 수 있다.



[부그림 1-4] 영국 MNWB 측정틀

○ 지표선정과정

- 지표선정자  
영국통계청(전문가, 시민, 학자 등에게 자문을 받음)
- 지표선정기준
  - 1) 통계적으로 활발함 - 통계적으로 정확하고, 신빙성 있으며 유효해야 함
  - 2) 영국에서 구할 수 있음
  - 3) 정책 관련됨
  - 4) 국제비교가능
  - 5) 시계열로 표현가능하고 미래에도 구할 수 있어야 함
  - 6) UK 안의 국가들을 비교 가능
  - 7) 인구하위집단으로 분해되어야함
- 지표선정절차
  - 1) 2010. 11 ~ 2011. 4. 국내토론을 통하여 ‘무엇이 중요한가’에 대한 의견을 수렴. 의견공표는 온라인으로도 가능하였고 현장미팅은 전국적으로 175번 진행되어 총 7,250명이 참석, 참여응답은 약 34,000개임
  - 2) 2011. 10. ~ 2012. 1 수정된 영역 및 지표의 초안을 재공표 후 대중의 자문 실시. 온라인 설문조사, 보고서, 블로그, 이메일 등을 통하여 진행이 되었으며 약 1,700개의 온라인 설문조사를 수집함
  - 3) 2012. 7. 대중의 의견을 반영한 영역 및 지표 발표

○ 결과물

- 주요보고서 Measuring National Well-being: Life in the UK, 2012
  - 1) 지표나열법(주로 시계열, 일부 인구속성 및 지역 비교)
  - 2) 보고서 각 지표 아래 온라인 주소를 표기하여 컴퓨터로 클릭 시 그 자료 값을 다운받을 수 있는 웹페이지로 이동 가능
- 웹사이트  
[www.ons.gov.uk/ons/guide-method/user-guidance/well-being/index.html](http://www.ons.gov.uk/ons/guide-method/user-guidance/well-being/index.html)
  - 1) 보고서 제공
  - 2) 대화형 훔: 모든 지표를 원 안의 부채꼴로 표현하여 훔을 돌리면 각 지표 값을 간단하게 볼 수 있음
  - 3) 대화형 그래프: 국가 웰빙에서는 지역별 비교를, 개인웰빙에서는 연령 등 인구 하위집단 비교 가능



- 4) 대화형 지도: 지표의 값을 한 색의 다양한 채도로 지도에 표현하여 쉽게 지역별 비교 가능

#### ○ 결과물 활용 방안

아직 프로그램이 개발단계에 있기 때문에 어떤 정책적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다음과 같은 예제를 보면 이미 어느 정도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기초가 잡혀져 있음을 알 수 있다.

- 1) 지역사회와 지방정부 부서: 각 지역 및 지방의 주관적 웰빙 지표가 이미 분석되어져 있고 그 결과에서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지방정부, 위원회, 지역사회에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다.
- 2) 노동·연금 부서: 낮은 정신건강과 주관적 웰빙을 가진 사람이 직업을 구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결과로부터 직업센터와 정신건강협회와의 공동작업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다.
- 3) 경제혁신 및 능력 부서: 교육을 받고 있는 성인이 높은 삶의 만족도, 웰빙, 건강에 큰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결과는 지역사회교육에 대한 예산 배정에 있어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다.
- 4) 내각부: 자원봉사활동이 주관적 웰빙을 높여준다.

#### 4) 부탄 Gross National Happiness(GNH)

추진주체	Centre for Bhutan Studies (부탄연구센터)
시작년도	1999년
범위	부탄
지표체계	4대축, 영역 9개, 지표 33개, 부가지표 124개, 지수 1개
지표선정자	부탄연구센터
추진단계	보고서공표
결과물	국민행복지수(인구 속성, 지역비교) 각 영역별로 행복 및 불행에 미치는 영향 표시

##### ○ 주 체

정부산하기관인 부탄연구센터에서 국민행복지수(GNH Index)를 작성하여 국민의 행복을 측정하고 연구한다.

##### ○ 연 혁

- 1972년 부탄 제 4대 국왕 지그메 싱게 왕추크가 GNP 대신 GNH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계획위원회(Planning Commission)를 만들
- 1999년 본격적으로 국민행복을 연구하기 위해 부탄 연구센터를 설립
- 2005년 GNH 개념을 국민행복지수로 개발하기로 결정
- 2007년 GNH 설문조사를 시작. 설문조사는 정신적 웰빙, 건강, 시간 활용, 지역 사회 활력, 교육, 문화, 환경, 생활수준의 9개 핵심분야로 구분되어 있음.
- 2008년 제 5대 국왕이 절대군주제에서 입헌군주제로 정치체계를 변경. 국민행복지수를 국가 정책의 기본틀로 채택
- 2008년부터 2년 주기로 국민행복지수 설문조사를 통해 작성하여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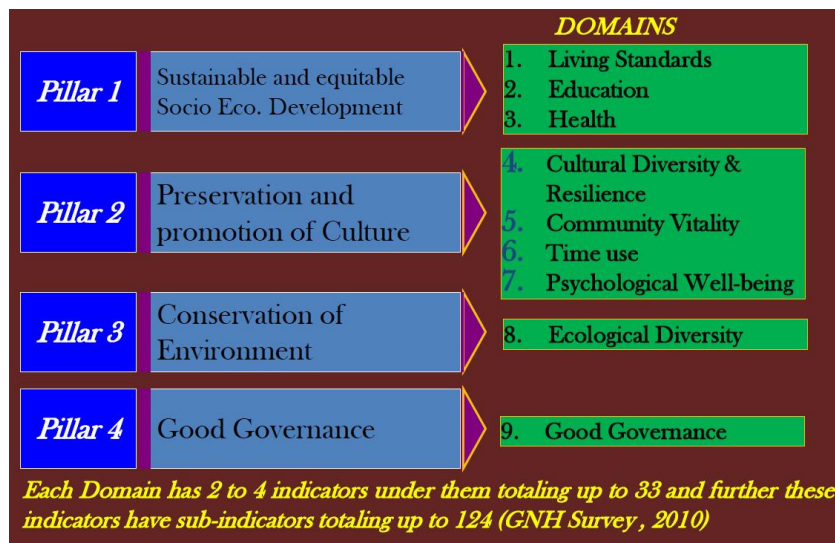
##### ○ 목 적

물질적 웰빙과 영적·감정적·문화적 필요의 조화로운 균형을 이루기 위한 다차원적 개발의 접근방법 작성



## ○ 측정틀

GNH의 4대 축은 (1) 지속가능하고 평등한 사회경제 발전(Sustainable and equitable socio economic development), (2) 문화보존 및 홍보(Preservation and promotion of culture), (3) 환경보존(Conservation of environment), (4) 올바른 통치구조(Good governance)로 작성되어 있다. 총 9개의 영역은 동일한 가중치를 가지며 그 안에 속하는 33개의 지표는 중요도에 따라 차등적 가중치를 부여한다. 특히 주관적 지표와 객관적 지표가 함께 한 영역을 구성하는 경우 객관적 지표의 가중치가 주관적 지표보다 높다. 부가지표는 총 124개가 있다.



[부그림 1-5] 부탄 GNH 4대 축 및 영역

## ○ 결과물

- 주요보고서 An Extensive Analysis of GNH Index (2012)
  - 1) 설문조사 분석
  - 2) 국민행복지수 작성
  - 3) 국민행복지수를 사용한 정책평가방법(GNH Screening)
  - 4) 지역별, 인구속성별로 각 영역이 전체 행복 및 불행에 미치는 영향 표시
- 웹사이트 <http://grossnationalhappiness.com>
  - 1) 국민행복지수 보고서 제공
  - 2) 국민행복 지수값 및 정책평가방법 설명
  - 3) 설문문항목록 보고서 및 설문결과 데이터를 제공

○ 결과물 활용 방안

국민행복지수는 국가 정책 결정의 기본틀로 쓰여진다. 새로운 정책의 효과가 국민행복지수의 가치에 부합하는지 평가하여 이를 증진시키는 정책만 채택하는데 이것을 GNH 검사(Screening)라고 한다. GNH 검사는 2가지 단계(프로젝트 단계, 정책단계)에서 적용될 수 있으며 세 가지(모든 부처 및 부문, 각 부처, 개별 부문)의 유형으로 구성된다. 모든 유형에서 동일하게 사용되는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9개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 설계된 평가 질문지(4점 만점)로 정책 및 그 효과를 판단한다. 1은 가장 부정적인 영향, 2는 불확실, 3은 중립적, 4는 긍정적인 영향이다.

Stress			
Will increase levels of stress in the population	Do not know the effects on levels of stress in the population	Will not have any appreciable effects on levels of stress in the population	Will decrease levels of stress in the population
↓	↓	↓	↓
<b>1</b>	<b>2</b>	<b>3</b>	<b>4</b>
Negative	Uncertain	Neutral	Positive

[부그림 1-6] 부탄 GNH screening 예시1

- 2) 위에서 평가된 점수를 모두 합하여 기준점수와 비교한다. 정책을 통과시키기 위한 기준점수는 질문수×3이다. 만약 평가된 점수가 기준점수보다 높으면 정책평가가 통과된 것이고 낮으면 정책사업이 재검토되거나 기각된다.
- 3) 아래의 정책평가를 예를 들어 살펴보면 3개의 질문으로 평가된(기준점수 3×3=9점) 정책의 평가점수는 10(3+3+4)점이다. 이 점수가 기준점수(9점)보다 높으므로 아래의 영역들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 판단되어 정책평가통과이다.





1. Stress			
Will increase levels of stress in the population	Do not know the effects on levels of stress in the population	Will not have any appreciable effects on levels of stress in the population	Will decrease levels of stress in the population
1	2	3	4

2. Culture			
Will decrease the opportunity for people to learn about or participate in cultural practices and traditions	Do not know the effect on opportunity to learn about or participate in cultural practices and traditions	Will have no effect on opportunity to learn about or participate in cultural practices and traditions	Will increase opportunity to learn about or participate in cultural practices and traditions.
1	2	3	4

3. Physical exercise			
Will discourage physical exercise	Not sure if it will discourage physical exercise	Will not discourage physical exercise	Will encourage physical exercise
1	2	3	4

[부그림 1-7] 부탄 GNH screening 예시2

## 5)네덜란드 Life Situation Index (LSI)

추진주체	네덜란드 사회연구원(SCP, The Netherlands Institute for Social Research)
시작년도	1973년
범위	네덜란드
지표체계	영역 8개, 지표 19개
지표선정자	SCP
추진단계	공표
결과물	지수 중점 분석(인구속성별, 시계열) 온라인으로 개인의 웰빙정도 확인가능

### ○ 주 체:

네덜란드 삶의 질 지수는 1974년 네덜란드 사회연구원인 SCP에서 개발하였다. 통계청과 함께 설문조사를 통하여 자료를 모으고, 2001년부터 2년에 한 번씩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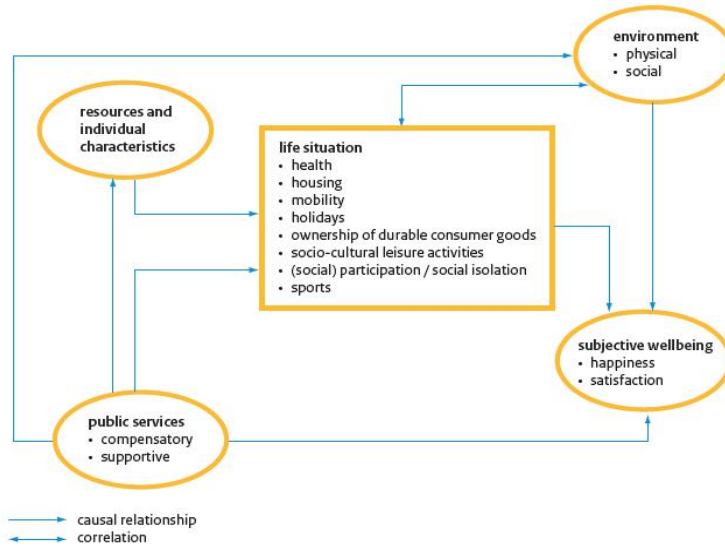
### ○ 목 적

(LSI의 최우선 목표) 사회 부작용을 방지하는 정책적 목적(특히 사회정책) 달성을 위해 사회발전을 정의하는 것이다. 또한 사회 부작용을 극복하기 위해 부작용이 생기는 곳을 규명한다. 정책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다섯 개의 목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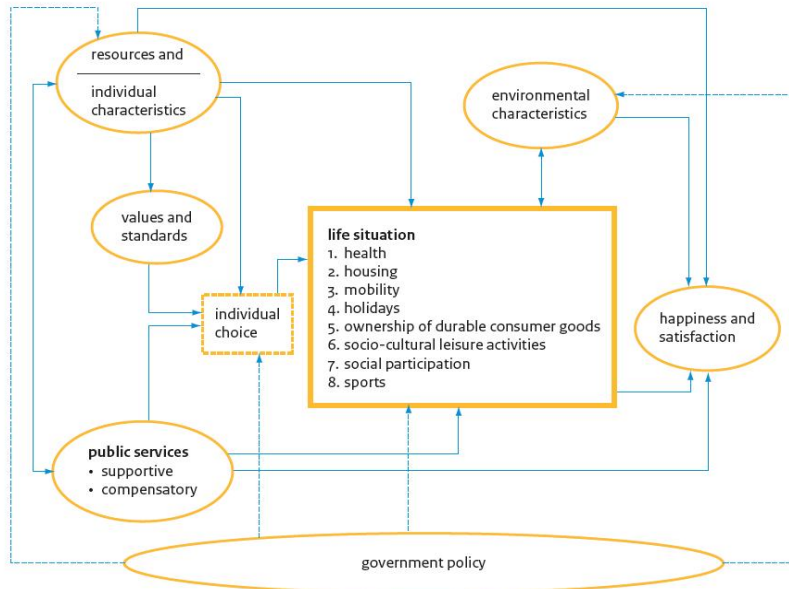
- 1) 삶의 현황 전체를 설명한다.
- 2) 장점과 단점으로 현황을 평가한다.
- 3) 변화를 보기 위해 시계열 자료를 만든다.
- 4) 시간의 변화에 따른 세부 지표들의 발전을 추적한다.
- 5) 더 광대한 측정틀로 삶의 현황에 대해 설명한다.

### ○ 측정틀

LSI의 기존 측정틀은 [부그림 1-8]과 같다. Public Services, environment, subjective wellbeing, life situation, resources and individual characteristics의 영역이 서로 인과관계와 상관성을 맺는다. 2010년 미래를 위한 제안과 이에 대한 새로운 측정틀에 대한 개념이 제시되었다.



[부그림 1-8] 기존의 LSI 측정틀



[부그림 1-9] 수정된 LSI 측정틀

- 1) 측정틀은 사람들의 선택, 선호, 가치, 규범을 나타낸다. 이 규범과 가치, 그리고 부분적 선호, 평가, 선택은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게끔 이끄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 2) 한 사회에 참가/협조를 하기 위한 충분한 능력을 가지는 것에 해당하는 '자립성'을 포함한다.
- 3) 전체적으로 구조방정식 모형을 사용하여 평가한다. 이 방법은 각 블록의 인과 관계, 자원의 효과 그리고 삶의 현황의 배경특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위의 제안을 통해 수정된 측정틀은 [부그림 1-9]와 같다.

#### ○ 지표선정과정

- 지표선정자: SCP
- 지표선정기준
  - 1)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표현되어야 함
  - 2) 모두에게 적용됨
  - 3) 개인 단위에서 측정됨
  - 4) 설명적, 기술적이어야함
  - 5) 결과에 중점을 두고 웰빙을 실현해야 함
- 지수선정기준
  - 1) 명확성을 가짐
  - 2) 시계열로 표현되어야 함
  - 3) 여러 영역으로 분해 가능
  - 4) 각 영역이 질적이고 독립적이어야 함
  - 5) 기술적이고 평가가능한 지표로 측정되어야 함
  - 6)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지표를 사용해야 함
  - 7) 중립적이고 긍정/부정적인 효과가 지수에 나타나는 지표를 사용해야 함
- 지표선정절차

1976년에 영역 6개와 지표 16개를 작성할 때에는 OECD 발표문 등 그 당시의 참고 문헌을 사용하였지만 상당히 실용적으로 영역과 지표를 결정하였다. 특히, 표면적 타당성과 그럴듯함(plausibility)에 의존하였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하면서 발전하였다.



OECD	Constitution	SCP 1976	SCP since 1997
health	health	health	health
education	education	education	*
job opportunities	job opportunities	job opportunities	*
goods and services	distribution of wealth	disposable income	ownership of durable consumer goods
physical environment (including housing)	living accommodation	housing	housing
safety			*
time and leisure	leisure activities	free time	leisure time activities
social participation (social environment)	social and cultural development		social participation
			*
			mobility
			holidays
			sports

[부그림 1-10] OECD와 네덜란드 LSI 영역 비교

## ○ 결과물

- 보고서 Wellbeing in the Netherlands - The SCP life situation index since 1974(2010)
  - 1) 2010년 수정된 개념들에 대한 설명
  - 2) 지수 중점 분석(인구속성별/시계열)
- 웹사이트
  - 1) 보고서 제공
  - 2) 개인의 웰빙정도 측정 가능(주거/소득 등의 정보 입력시 네덜란드인과 비교한 웰빙수치산출)

## 6) 아일랜드 Measuring Ireland's Progress(MIP)

추진주체	아일랜드 통계청 (CSO, Central Statistics Office)
시작년도	2003년
범위	아일랜드, EU국가
지표체계	영역 10개, 세부영역 49개, 지표 109개(아일랜드 지표와 유럽지표로 구분)
지표선정자	아일랜드 통계청
추진단계	보고서 공표
결과물	지표나열법(시계열, 인구하위집단, 국가비교)

### ○ 주 체

아일랜드의 MIP는 아일랜드 통계청에 의해 진행된다

### ○ 연 혁

- 사회파트너십 계약(Social Partnership Agreement) 2003-2005로 인하여 국가통계청이 국가발전 지표를 지지하는 위치에 놓여짐. 국가통계 동향을 전략하는 국가통계 위원회(NSB, National Statistics Board)가 아일랜드 통계청에게 ‘정책욕구에 맞춘 아일랜드 사회 및 평균 통계개발’(Developing Irish Social and Equality Statistics to meet Policy Needs) 보고서에 들어갈 국가지표의 예비보고서를 준비해달라고 요청함
- NSB가 '통계 2003-2008 전략'(Strategy for Statistics)에서 필요한 주요지표 작성을 통계청에 재요청(여러 개의 지표를 국제통계개념과 맞추어 달라고 부탁)
- 이에 따라 2003년 12월 국가통계청에서 국가발전지표의 예비보고서인 Measuring Ireland's Progress 보고서를 출판한 후 매년 보고서를 공표함

### ○ 목 적

경제, 사회, 환경 분야에서의 발전을 보여주기 위함

### ○ 결과물

- 주요보고서 Measuring Ireland's Progress(2010)
  - 1) 지표나열법(시계열, 인구하위집단별)



- 2) 보고서 한 면의 왼쪽에는 지표나열법으로 아일랜드 상황을 보여주고, 오른쪽에는 EU국가와 값을 비교
- 웹사이트 [www.statcentral.ie/viewStat.asp?id=191](http://www.statcentral.ie/viewStat.asp?id=191)
    - 1) 보고서 제공
    - 2) 자료 값 제공

## 7) 벨기에 WellBeBe

추진주체	벨기에 연방과학정책국(Belspo, Belgian Federal Science)
참여주체	ULB대학과 KULEUVEN 대학 내 관련센터, 지속가능개발연구소(IDD)
시작년도	2006년
범위	벨기에
추진단계	측정틀 공표
결과물	측정틀 설명

### ○ 주 체

벨기에 연방과학정책국 Belspo에서 WellBeBe를 추진하였다. Belspo는 ULB 대학교와 KULEUVEN 대학교 내의 센터와의 협업을 하고 지속가능개발연구소(IDD, Sustainable Development Institute)의 협조를 받는다.

### ○ 프로젝트 진행과정

WellBeBe는 2006년부터 2011년까지 4년간 진행된 프로젝트이다. 벨기에 웰빙지수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었으나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삶의 질 측정틀 작성과 함께 프로젝트가 종료되었다.

### ○ 목 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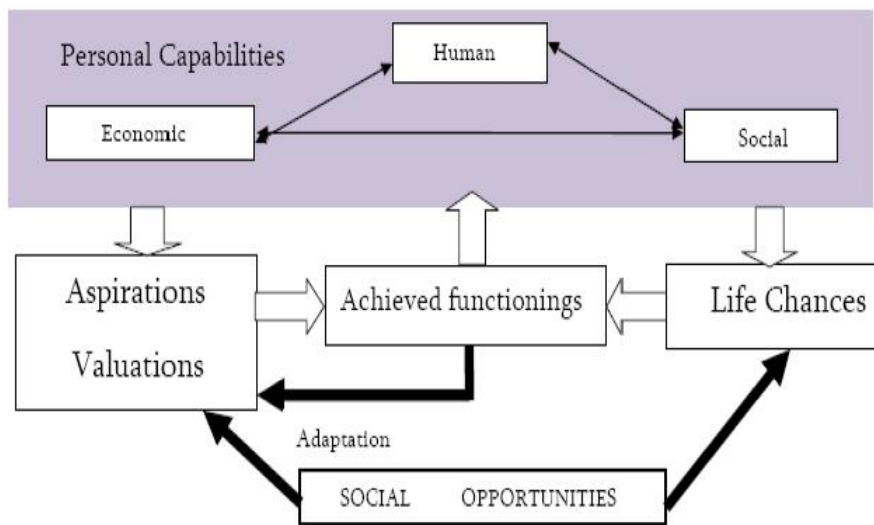
- (EuroStat 보고서 내) WellBeBe의 목표는 웰빙에 대한 역동적인 개념에 기초하여 GDP 대체지표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 지표는 사람의 인생(Life Cycle)에서 개인을 고려하고 삶의 기회(Life Chance) 개념을 통한 사회구조의 정의를 포함한다.
- 이 프로젝트는 벨기에의 웰빙지수를 만드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그 지수는 완전히 내부적으로 일관되고 민주적, 합법적이며, 지속가능개발 정책을 이끌어 나가고 분석하는데 적합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 1) “좋은 삶” 개념에 대해 사람들의 차이를 정의하고 그 분포를 조사한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람들에게 있어서 웰빙의 뜻과 삶을 가치있게 만드는 것들, 웰빙의 주요차원과 각각의 중요성에 대해 연구한다.
  - 2) 사람들이 웰빙 관련 사회만남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분석한다.





- 3) 웰빙 구성요소 중의 중요지표를 정의하고 구하기 용이한 지표를 구한다.
- 4) 일반인 표본으로 기초지표를 조사하여 유의미한 가중치를 구한다.
- 5) 자료들을 통합하여 가장 유용한 종합지수를 작성한다.
- 6) 지수의 동향 및 지수와 다른 지표와의 상관성을 분석한다.
- 7)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설적인 지속가능개발정책(웰빙관련)을 탐구해본다.

### ○ 측정틀



[부그림 1-11] 벨기에 WellBeBe 측정틀

### ○ 결과물

- 주요보고서 WellBeBe-Results: Towards indicators of Well-being for Belgium (2011) Focus Group, Q-Methodology, 일반 설문조사 및 경제계량 분석(OLS, 순위로짓) 그리고 시민패널을 이용한 결과로 웰빙에 대한 개념들을 설명하였다.

## 8) 중국 Hong Kong Quality of Life Index

추진주체	홍콩중문대학 삶의 질 센터
참여주체	국내외 학자 및 홍콩중문대학 사회과학 교직원
시작년도	2003년
범위	홍콩
지표체계	하위지수 3개, 삶의 질 지수 1개, 지표 21개
추진단계	보고서 공표
결과물	3개의 하위지수 및 삶의 질 지수 시계열 비교 그래프

### ○ 주 체

중국 홍콩 삶의 질 지수는 홍콩중문대학 삶의 질 센터(The Centre for Quality of Life, Hong Kong Institute of Asia-Pacific Studies, The Chinese University of Hong Kong)에 의해 2003년에 시작되었다. 참여주체로는 국내외 학자 및 홍콩중문대학 사회과학 교직원이 있다.

### ○ 연 혁

2003년 11월 CUHK Hong Kong Quality of Life Index 보고서 발표 이후 매년 보고서를 발간해왔다. 가장 최신 보고서는 2012년에 발간되었다.

### ○ 목 적

삶의 질 센터는 이 종합지수를 활용하여

- 1) 21세기의 홍콩 삶의 질을 측정하고 그 흐름을 파악하려고 한다.
- 2) 관련 정당이 홍콩의 삶의 질을 옹호하고 지지하게끔 한다.
- 3) 정책결정자와 지역공동체에 유용한 참고자료를 주고
- 4) 홍콩 삶의 질 승격을 위한 공표를 하며 삶의 질 문제에 대하여 민간의 주목을 이끈다.



○ 결과물

- 보고서 CUHK Hong Kong Quality of Life Index(2012)
  - 1) 하위지수 세 개 및 삶의 질 지수의 시계열 비교 그래프(2002년 기준 비교) 제공
  - 2) 지표결과 값을 시계열로 제공
- 웹사이트 <http://www.cuhk.edu.hk/ssc/qol/eng/hkqol.html>
  - 1) 보고서 제공

## 9) 호주 Australian Unity Well Being Index

추진주체	Australian Unity, Deakin 대학의 호주 삶의 질 센터(Australian Centre on Quality of Life)
시작년도	2000년
범위	개인 및 국가(호주)
지표체계	지수 2개, 개인영역 8개, 국가영역 6개
지표선정자	Deakin 대학의 Robert Cummins교수와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의 사회분석가 Richard Eckersley
추진단계	보고서 공표
결과물	지표나열법(시계열, 영역별, 인구속성별, 지역별) 자신의 개인웰빙지수 확인 가능

### ○ 주 체

호주의 Australian Unity Well Being Index는 호주 국민의 의료, 재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험회사와 Deakin 대학교의 호주 삶의 질 센터에서 진행되고 있다.

### ○ 연 혁

- 2000년 Australian Unity가 사회발전을 추적하는 국가지수 창조를 개념화하였고 Deakin 대학교의 Robert Cummins교수와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의 사회분석가 Richard Eckersley가 함께 웰빙지수를 창안하였다.
- Cummins교수는 지수의 첫 저자가 되었으며 첫 번째 개인웰빙지수 설문조사는 2001년에 시행되었다.
- 2012년 5월에 설문조사와 함께 28번의 보고서가 발간되었다.

### ○ 프로젝트 진행과정 및 흐름

- 매년 두, 세 번의 설문조사를 실시 후 그 설문결과를 토대로 지수를 작성한다. 각 회마다 설문방법이 조금씩 틀려져 왔는데, 전화나 우편 등의 방법을 활용해 왔다. 설문 및 분석 방법은 Subjective Wellbeing Homeostasis를 사용한다.
- 각 영역에 대한 점수의 합(Strength of Satisfaction)의 평균 점수로 개인 웰빙지수와 국가 웰빙지수를 구한다.
- 개인 웰빙지수의 영역에는 1)생활수준, 2)건강, 3)성취정도, 4)개인관계, 5)안전, 6)지역공동체와의 연결, 7)미래치안, 8)정신적 충족이 있다.



- 국가 웰빙지수의 영역에는 1)경제현황, 2)환경, 3)사회환경, 4)정부, 5)기업, 6)국가 안보가 있다.

#### ○ 목 적

Australian Unity 웰빙지수는 호주 국민의 웰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회문제를 조사하고 그에 대한 인식을 증가시키는 목적이 있다.

#### ○ 결과물

- 보고서 What makes us happy(2010)
  - 1) 개인 및 국가 웰빙지수(시계열)
  - 2) 지표나열법(시계열, 영역별, 인구속성별, 지역별)
- 웹사이트 [www.australianunity.com.au/about-us/Wellbeing/](http://www.australianunity.com.au/about-us/Wellbeing/)
  - 1) 보고서 제공
  - 2) 자신의 개인 웰빙지수 확인 가능

#### ○ 결과물 활용 방안

Australian Unity 웰빙지수는 삶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소 중 경제 분야에서 거론되지 않는 부분을 조사한다.

- 1) 이 웰빙지수는 공개토론회를 통해 우리가 살고 싶은 사회에 대한 정보를 준다.
- 2) 이 웰빙지수는 지역단체, 정부, 기업가, 정책결정자에게 신빙성 있는 웰빙정보를 알려준다. 전략적 계획과 정책결정부터 개인의 웰빙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정보까지 여러 목적으로 웰빙에 대한 정보를 사용할 수 있다.
- 3) 이 웰빙지수는 호주 국민의 웰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회문제에 대한 인식을 증가시킨다.
- 4) 특히, 여러 사회의 특징을 잡아내는데 유용하기 때문에 한 사회의 자원이 수요를 넘어선다거나 공황을 피하기 위해 도움이 필요한 곳을 찾아낼 수 있다.

## 10) 호주의 Measures of Australia's Progress(MA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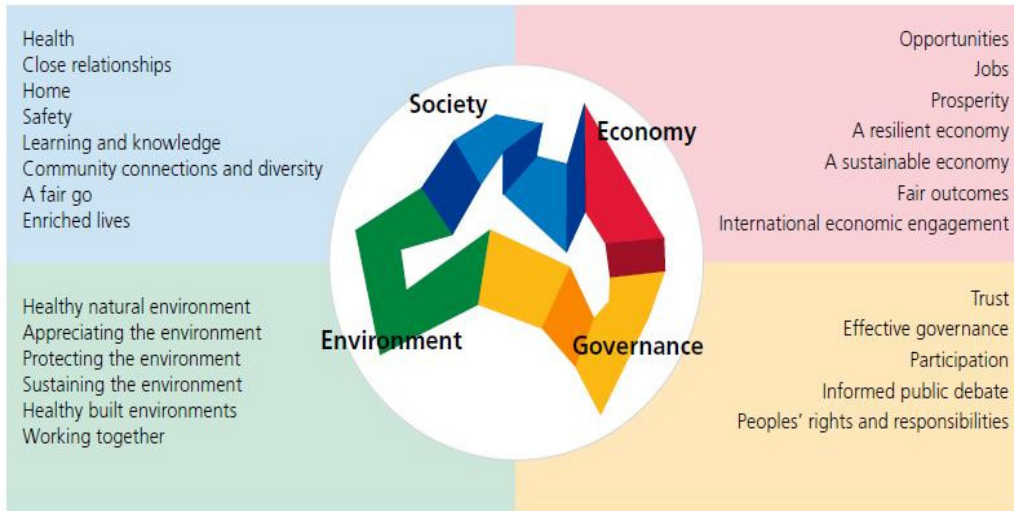
추진주체	호주통계청(ABS,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시작년도	2002년
범위	호주
지표체계	(기존) 영역 3개, 주요차원 17개, 세부지표 100개 (신규) 영역 4개, 주제 26개, 요소 120개, 지표수 미정
지표선정자	호주통계청(전문가, 시민, 학자 등에게 자문을 받음)
추진단계	(기존) 공표 (신규) 지표 설정 중
결과물	(기존) 지표나열법(시계열), 신호등

## ○ 주 체

호주 MAP(Measures of Australia's Progress)는 호주통계청이 추진하는 과제이다.

## ○ 연혁 및 프로젝트 흐름

- 호주 MAP는 2002년에 첫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그 후, 꾸준히 보고서를 발간하였고 현재에는 새로운 측정틀 및 지표체계로의 개선과정을 밟고 있다. 현재 4가지 영역과 26개 주제, 120개의 요소를 설정하였다. 그 영역은 사회, 경제, 환경, 정부로 나뉜다([부그림 1-12]).
- MAP의 첫 번째 보고서가 발간된 이후 발전측정에 관한 국내외의 관심이 크게 증가하였다. 2009년 Austria 2020 Summit에서 발전측정지표를 개선할 필요성에 대해 토론하였고 G20 Summit은 경제적 발전의 사회적, 환경적 측면을 포함하는 연구를 권고하였다. 2009년 경제활동측정 및 사회발전 위원회에서는 측정통계에 대해 재고를 권장하였고 세계적 협의를 통해 국가통계기구가 사회의 관심사를 제대로 측정하는지 확인하도록 권고하였다.
- 2012년 보고서를 보면 새로운 지표체계가 아직 확실히 결정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기존 지표의 결과를 보여주는 2010년 보고서 이전의 연구방법 등이 더 이상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예전 측정틀 및 지표체계 선정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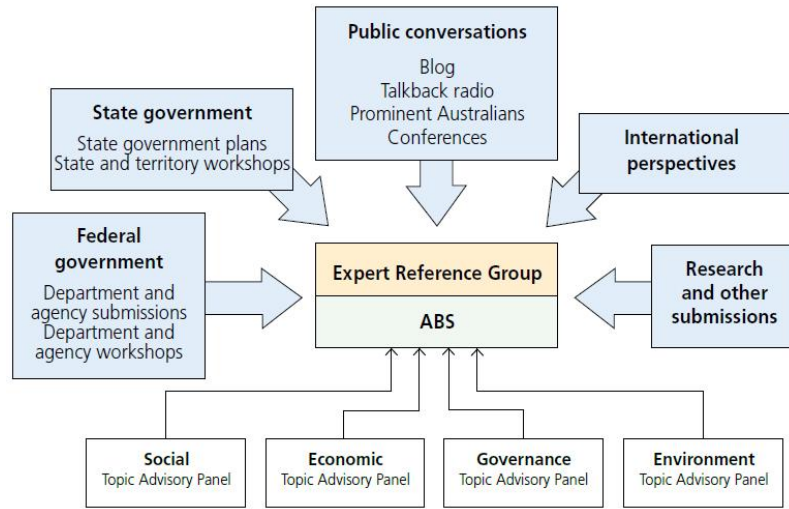
[부그림 1-12] 호주 MAP 신규 영역 및 주제

#### ○ 지표선정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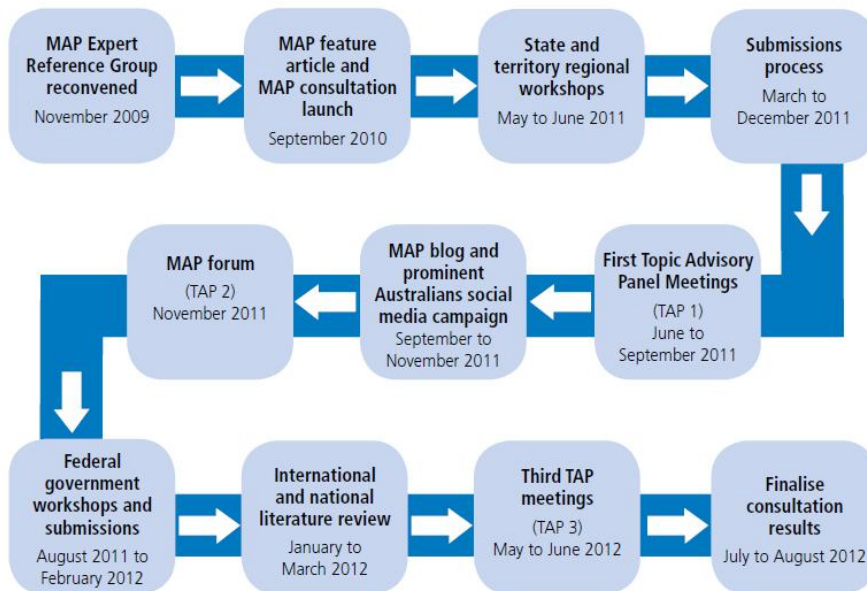
- 지표선정자: 호주 통계청
- 지표선정기준
  - 1) 특정 발전관점과의 관련성
  - 2) 산출에 초점
  - 3) 방향의 명확성
  - 4) 시의성이 있는 좋은 자료의 뒷받침(타당성)
  - 5) 시계열로 추적
  - 6) 특정 발전관점의 변화에 대한 민감성
  - 7) 간결하게 요약된 지표
  - 8) 인구집단 및 지리적으로 분해가능성
  - 9) 이해용이성
- 지표선정절차

호주 MAP는 2009년 전문가 그룹을 소집하여 2011년까지 여러 번의 자문회의 및 지역 워크숍을 실행하였고 2011년 9월부터 11월 사이에 온라인으로 호주 국민이 열망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수집하였다. 그 과정은 블로그, SNS 등을 통하여 진행이 되었는데, 이를 통해 얻어진 의견은 다시 연방정부 워크숍과 전문가 토론을 통해 다듬어지고 정리되었다. 자문 및 의견수집과정에 참여한 단체와 참여방법은 [부그림 1-13], [부그림 1-14]와 같이 정리되어 있다.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워크숍을 통해 자문하였고 시민과의 대화는

블로그, 라디오 등을 통하여 진행되었다. 여기에 국제의견과 선행 연구뿐만 아니라 각 영역 전문가들의 의견이 포함되었다. 현재 자문 및 의견수집 결과를 정리하여 4가지 영역과 26개 주제, 120개의 요소를 설정하였고 구체적인 지표는 아직 미정이다.



[부그림 1-13] 호주 MAP 자문 및 의견수집과정에 참여한 단체



[부그림 1-14] 호주 MAP 자문 및 의견수집과정





## ○ 결과물

- (기존) 주요보고서: Measures of Australia's Progress(2010)

- 1) 주요 지표의 10년 사이의 변화를 신호등으로 표시
- 2) 지표나열법(시계열)

- 웹사이트

[www.abs.gov.au/ausstats/abs@.nsf/Lookup/by%20Subject/1370.0~2010~Main%20Features~Home%20page%20\(1\)](http://www.abs.gov.au/ausstats/abs@.nsf/Lookup/by%20Subject/1370.0~2010~Main%20Features~Home%20page%20(1))

- 1) 보고서 및 데이터 제공
- 2) 주요 지표의 10년 사이의 변화를 신호등으로 표시
- 3) 지표나열법(주로 시계열, 일부 인구속성)

### 11) 이탈리아 Benessere Equo e Sostenibile(BES, Measuring Equitable and Sustainable Wellbeing in Italy)

추진주체	경제와 노동을 위한 위원회(CNEL, National Council for Economics and Labour), 이탈리아 통계청(Istat, Italian National Institutes of Statistics)의 협력연구
시작년도	2010년
범위	이탈리아
지표체계	영역 12개, 지표 134개
지표선정자	이탈리아 통계청이 영역별 내/외부 전문가를 소집하여 구성된 과학위원회가 지표를 선정, CNEL가 지표 승인
추진단계	보고서 공표
결과물	지표나열법(지역별, 성별, 연도별) 신호등

#### ○ 주 체

이탈리아의 BES는 경제와 노동을 위한 위원회(CNEL)와 이탈리아 통계청(Istat)의 공동추진연구이다. 두 개의 축인 운영위원회(Steering Committee)와 과학위원회(Scientific Comission)로 나누어져 연구가 진행된다.

- 1) 운영위원회: CNEL와 Istat이 조직화한 20명의 사업자협회, 노동조합, NGO
  - 지속가능성과 균등한 웰빙을 정의하는 분류체계(영역) 작성, 과정에 대한 평가
  - 영역 설정 후 자문회의와 통계청의 국가연례설문조사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수렴
  - 측정틀을 설정하고 지표 결과물의 표현정도 및 정책관련성을 평가
- 2) 과학위원회: Istat이 소집한 79명의 영역별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
  - 지표 평가 및 분석을 통해 지표를 선정. 지수작성기회에 대한 평가

#### ○ 연혁 및 프로젝트 흐름

- 2010년 12월 CNEL와 Istat의 공동추진으로 출범.
- 2011년 4월 운영위원회의 첫 회의 진행: 측정틀, 영역, 지표, 주요지표, 지수 등에 관한 토론을 함.
- 2011년 5월 Istat의 주최로 과학위원회의 회의가 진행됨.
- 2011년 11월 운영위원회가 영역을 제안하고 과학위원회에 지표작성에 관한 권고를 함.



- 2011년 11월 ~ 2012년 3월 온라인 자문을 받음. 전문가, 기술자, 관심 있는 일반 시민이 참여.
- 2011년 기존 “Aspects of Daily Life” 설문조사에 웰빙에 관한 설문항목을 넣음  
이탈리안 시민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웰빙 요소를 선택하게 함
- 2012년 1월 과학위원회가 지표 초안 작성
- 2012년 3월 운영위원회와 과학위원회의 회의가 진행됨
- 2012년 6월 CNEL assembly에서 134개의 지표를 승인
- 2013년 3월 최종보고서가 이탈리아어로 발간. 영어 요약본 발간

#### ○ 목 적

국가차원에서 공유되는 웰빙의 척도를 확인하고 국가 미래를 위한 중요한 민주적 결정을 이끄는 데 사용되기 위함

#### ○ 측정틀(영역구성)

건강(health), 교육과 훈련(education and training), 일과 삶의 균형(work and life balance), 경제적 웰빙(economic well-being), 사회적 관계(social relationship), 정치와 제도(politics and institutions), 안전(security), 주관적 웰빙(subjective well-being), 문화유산(landscape and cultural heritage), 환경(environment), 연구와 혁신(research and innovation), 서비스의 질(quality of services)

#### ○ 결과물

- 보고서 BES 2013, Equitable and Sustainable Wellbeing in Italy
  - 1) 주요보고서(이탈리아어): 지표나열법(지역별, 성별, 연도별)
  - 2) 요약보고서(영어): 영역별 결과 설명
- 웹사이트 [www.misuredelbenessere.it/index.php?id=48](http://www.misuredelbenessere.it/index.php?id=48)(영어)
  - 1) 보고서 제공
  - 2) 지표동향(시계열, 신호등)

## 12) 일본 Measuring National Well-being

추진주체	내각부 웰빙측정위원회
시작년도	2010년
범위	일본
지표체계	영역 3개, 요소 12개, 지표 132개
지표선정자	내각부 웰빙측정위원회
추진단계	측정틀 및 임시지표공표
결과물	측정틀 및 임시지표 설명

### ○ 연 혁

- 2010년 일본내각부의 신성장전략에 의해 웰빙측정과제 시작
- 2011년 12월 웰빙 임시지표 발표

### ○ 목 적

웰빙지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가능하게 한다.

- 1) 개인적 웰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할 수 있고, 웰빙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장점들과 단점들을 파악하게 한다. 또한 사회에서 개선/악화되고 있는 측면을 관찰하게 해준다.
- 2) 광범위한 토론을 위해 사람들에게 사회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에 대해 깊게 이해할 기회를 준다. 개인적 웰빙과 국가적 웰빙을 위해 필요한 조치들에 대해 개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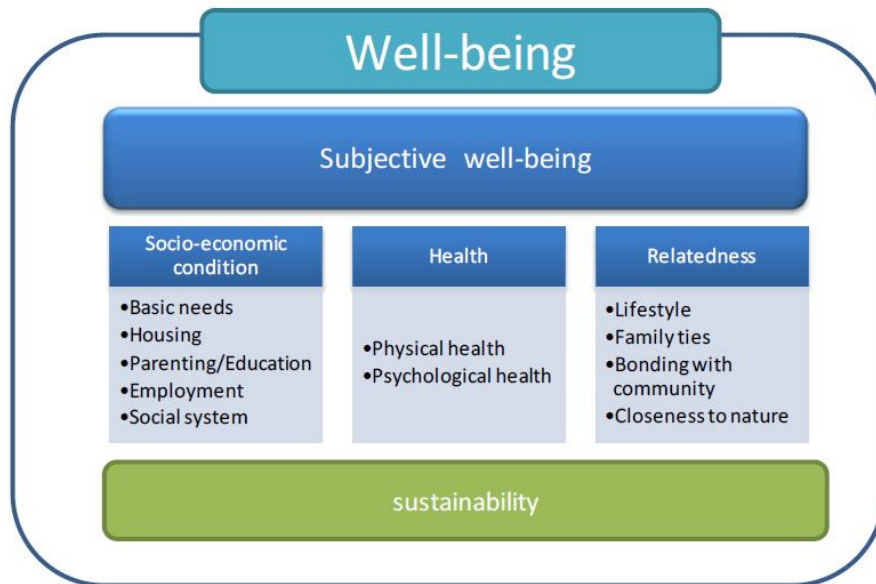
### ○ 측정틀

아래는 측정틀에 관한 여섯 개의 주요특징이다.

- 1) 이 측정틀은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측면이 웰빙에 어떤 기여를 하는지 설명한다. 한 개의 통합 점수를 사용하기보다는 여러 개의 지표를 각기 분석한다. 그래야 다차원 특성을 유지할 수 있고 웰빙을 촉진하기 위해서 어떤 사회측면이 관심을 요하는지 또는 개선될 필요성이 있는지 알 수 있다.
- 2) 이 측정틀은 주관적 지표와 객관적 지표 둘 다 포함한다.
- 3) 우리는 웰빙을 주관적 현상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이 측정틀에서 주관적 웰빙은 전체적인 웰빙 평가에 있어서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 4) 이 측정들은 삶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차원을 세 가지 영역으로 묶는다. 그 영역은 사회·경제적 상황(socio-economic situation), 건강(health), 관계성(relatedness)이다.
- 5) 인생의 여러 단계를 고려한다. 따라서 몇 개의 지표들은 특정 연령집단을 겨냥하고 있다.
- 6) 지속가능성은 좀 더 개념적인 영역으로 포함되어 있다. 현존하는 연구에서 지속가능성은 현재 시대의 웰빙에 영향을 끼치지 않지만 미래세대의 웰빙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부그림 1-15] 일본 MNWB 측정틀

#### ○ 지표선정과정

- 지표선정자: 내각부 웰빙측정위원회
- 지표선정절차(복지지표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참조)
  - 1) 3차례의 웰빙 연구회를 개최 후 2011년 12월 임시웰빙지표를 보고
    - 첫 번째 회의: 연구회 진행방식 논의 및 “2009 국민생활선호도 조사” 결과 검토
    - 두 번째 회의: 지표 선정의 방향성 제시, 미국과 일본의 기존 연구 검토를 통해 요소 및 지표에 대한 검토

- 세 번째 회의: 일본이 앞으로 지향해야 할 사회에 대한 국민의 의견 수렴(웰빙지표 앙케이트) 조사결과 발표
- 2) 2012년 3월 주관적 웰빙 등 국민 삶의 질 평가나 감정 및 지지요인을 지속적으로 구체적으로 살피기 위해 ‘생활의 질에 관한 패널 조사’를 약 만 명의 15세 인구대상 면접조사 실시
- 3) 2012년 4월 위의 조사를 3가지 방식으로 확대하기로 결정, ① 기존의 조사방식을 유지, ② 세대 간의 웰빙차이를 구하기 위해 세대 패널조사를 본격적으로 시행, ③ 방문 설문 이외의 인터넷 조사를 1만 명 대상으로 실시.  
이후에도 구체화된 웰빙 조사방침을 발표하고 있다.

○ 결과물

- 주요보고서 Measuring National Well-being: Proposed Well-being Indicators(2011)
  - 1) 개념틀 설명
  - 2) 임시지표 공표 및 설명



### 13) 스위스 MONET Indicator System

추진주체	스위스 통계청(SFSO, Swiss Federal Statistical Office), 주거개발연방사무소(ARE, Federal Office for Spatial Development), 연방환경국(FOEN, Federal Office for the Environment)
시작년도	2000년대 초반
범위	스위스
지표체계	주요주제 12개, 주제 26개, 주요지표 17개, 세부지표 163개
지표선정자	(선정) 20개의 연방연구소를 대표하여 모인 총 80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13개의 실무그룹 (확인) 스위스 통계청
추진단계	공표
결과물	지표나열법(시계열) 신호등

#### ○ 주 체

2000년대 초반에 스위스 통계청(SFSO), 스위스 주거개발연방사무소(ARE), 스위스 연방환경국(FOEN)의 협력과제로 스위스 MONET Indicator System을 추진하였다. MONET은 독일어로 ‘지속가능발전을 관찰함’의 뜻을 가진 단어들의 머리글자를 붙여서 만든 이름이다.

#### ○ 연 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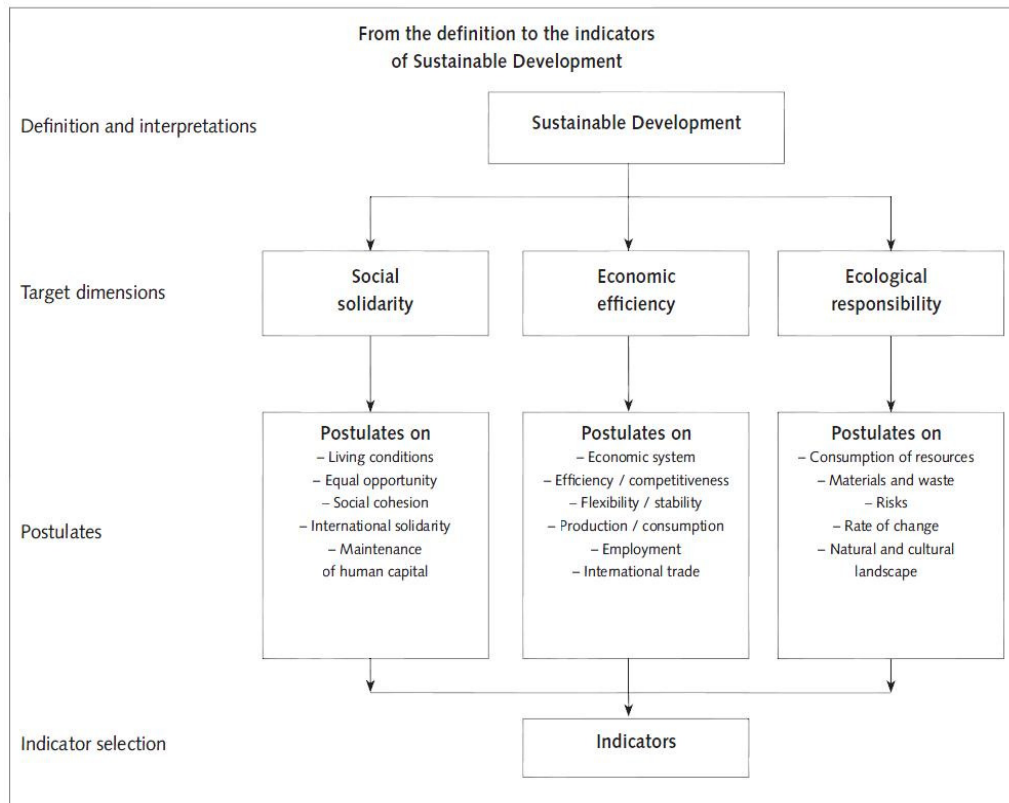
- 2000년도 초반에 시작
- 2004년 측정틀 및 지표선정방법을 확정
- 2005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2년, 2013년에 요약본(Brief Guide 또는 Pocket Statistics) 발행. 주요지표를 신호등과 지표나열법으로 나타냄
- 2012년 보고서 발간

#### ○ 목 적

스위스의 지속가능발전을 측정하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MONET 과제의 목표이다. MONET의 목적은 현재의 정책을 관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전반적이고 종합적인 지속 가능한 발전의 모형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 측정틀

MONET 지표체계에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쉐린지하는 세 가지 차원(Social Solidarity, Economic Efficiency, Environmental Responsibility)이 있고 각 차원은 다양한 주제로 구성 되어 있다. 현재에는 12개의 주제가 주요주제로 선택되어져 있다.



[부그림 1-16] 스위스 MONET 측정틀

○ 지표선정과정

- 지표선정자  
20개의 연방연구소를 대표하여 모인 총 80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13개의 실무그룹
- 지표확인자  
MONET 과제 팀(스위스 통계청)
- 지표선정기준





## 〈부표 1-1〉 스위스 MONET 지표선정기준

지표선정기준		중요도
기준틀	스위스에서 중요성 및 관련성	XX
	MONET 주제와의 관련성	XX
	평가관련 명확성	X'
	변화에 대한 민감성	X
	시의성 및 공간적 중요성	X
	대상의 급박성	X
	대상이 장기적으로 고갈될 가능성	X
이용 용이성	이해용이성	XX
	정보 내용의 타당성	XX
	공공 관련성	X
	정치적 관련성	X
타당성	과학적 배경에 기초	XX
	해석에 대한 의견 일치	X
자료 이용 가능성	낮은 비용으로의 이용가능성	XX
	정기적으로 동일하게 기록된 자료	XX
	정량화의 가능성	XX
	스위스 전체를 대표	X

- 지표선정절차

MONET 지표체계는 그리드 시스템(Grid System)을 이용하여 지표분류의 두 가지 접근 방법인 주제접근(thematic approach)과 절차접근(procedural approach)을 2차원으로 사용한다.

- 1) 주제접근은 “무엇을 측정할 것인가(What to measure)?”에 따라 지표를 분류하는 것으로 주거, 건강, 문화 등의 주제로 지표를 구분한다.
- 2) 절차접근은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How to measure)?”에 따라 지표를 분류하는 것으로 지표종류는 정도, 자본, 투입산출, 분포, 효율성, 반응이 있다. 그 예제 및 설명은 아래의 표에 나타나있다(<부표 1-2>).

각각의 지표를 주제(주제접근)와 지표종류(절차접근)로 특성을 구분한 뒤, [부그림 1-17]과 같은 그리드 시스템에 맞추어 넣는다. 이로써 한 가지 주제를 6개의 특성 지표들로 평가할 수 있다.

〈부표 1-2〉 절차접근(procedural approach)의 지표종류(type of indicator)

지표종류	주요 질문	지표예제
정도 Level(flow)	개인적 욕구와 사회적 요구가 어느 정도 맞는가?	실업률, 기대수명, 물리적인안전
자본 Capital(stock)	다음 세대에 무엇을 남기는가?	생물 종의 종류, 부채 정도, 15세 독서력
투입산출 Input/Output(flux)	자본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GDP 투자비율, 최종에너지수요, 온실가스배출량
분포 Distribution(ratio)	자원이 어떻게 분포되는가?	남녀임금차이, 소득분포불평등
효율성 Efficiency(ratio)	효율적이게 자원을 쓰고 있는가?	에너지원단위, 운송교통강도
반응 Response(flux)	관찰된 변화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오가닉 제품에 대한 수요, 환경관련세금

Matrix showing the two approaches to the indicator system

Figure 4

Types of indicator ("how to measure")

Topics or principles ("what to measure")						
					Indicator X	

© Federal Statistical Office (FSO)

[부그림 1-17] 스위스 MONET 지표평가 그리드 시스템

○ 결과물

- 주요보고서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 2012
  - 1) 지표나열법(시계열)
  - 2) 지표의 목표동향, 관측동향에 대해 증가/감소/유지 화살표(신호등)
- 웹사이트
 

[www.bfs.admin.ch/bfs/portal/en/index/themen/21/02/ind9.approach.903.html](http://www.bfs.admin.ch/bfs/portal/en/index/themen/21/02/ind9.approach.903.html)

  - 1) 보고서 제공
  - 2) 신호등



#### 14) 영국 National Accounts of Well-Being(NAWB)

추진주체	영국 The New Economics Foundation(NEF)
참여주체	European Social Survey(the ESS), Well-being Institute(WBI), 교수진
시작년도	2009년
범위	22개 EU 국가
지표체계	웰빙지수 3개, 주요지표 2개와 기타지표 1개(well-being at work), 주요구성지표 7개, 하위구성지표 10개
지표선정자	The NEF
추진단계	공표
결과물	국가별 지수 순위, 스파이더 다이어그램, 지표나열법(주로 국가비교, 일부 연령/지역별) 대화형 그래프, z-score 자료

##### ○ 주 체

2009년 영국의 NPO인 The New Economics Foundation(NEF)이 National Accounts of Well-Being(NAWB)을 만들었다. 참여주체로는 ESS와 WBI 그리고 교수진들이 있다.

##### ○ 목 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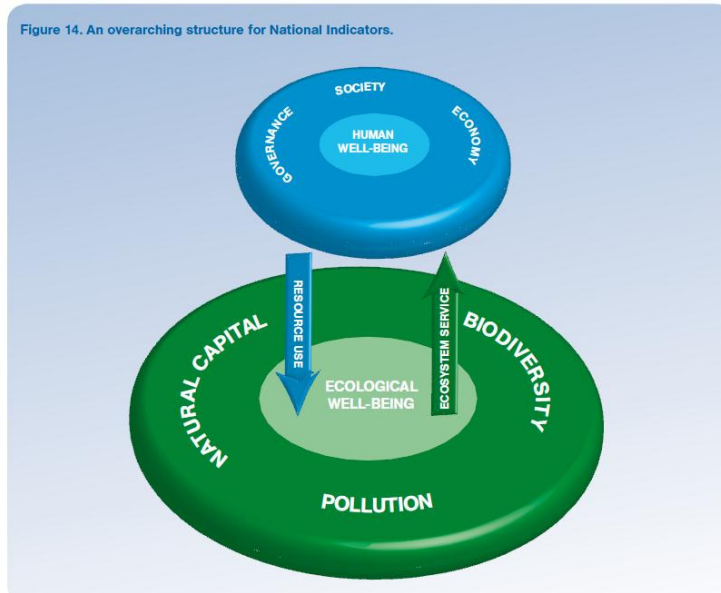
경제, 환경, 사회의 주요문제에 획기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여 삶의 질을 개선한다.

##### ○ 측정틀

NAWB 측정틀에서는 다음을 포착하려 한다([부그림 1-18]).

- **삶의 만족도 이상의 것.** 주관적 웰빙을 다양한 측면과 여러 요소의 역동적인 조합이라고 이해하는 방식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 방법에서는 지표가 한 개의 질문보다 큰 범위를 가져야 하고 단순한 삶의 만족도보다 큰 것을 포용해야한다.
-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 사람들의 삶의 경험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라고 연구에서 밝혀져왔다. 따라서 영국의 연구에서는 웰빙의 사회적 측면을 측정하는 접근방법을 갖는다.
- **감정과 기능적·심리학적 자원.** 행복과 삶의 만족도 측정에 대한 전통적인 시각은 좋은 느낌과 삶에 대한 긍정적 판단을 정의하는 것이다. 영국의 측정

들은 이보다 더 큰 범위로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그들의 기능과 잠재력발현에 대해 측정한다. 또한, 심리학적 자원 역시 측정들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는 점점 대두되고 있는 정신자본을 반영하는 주요요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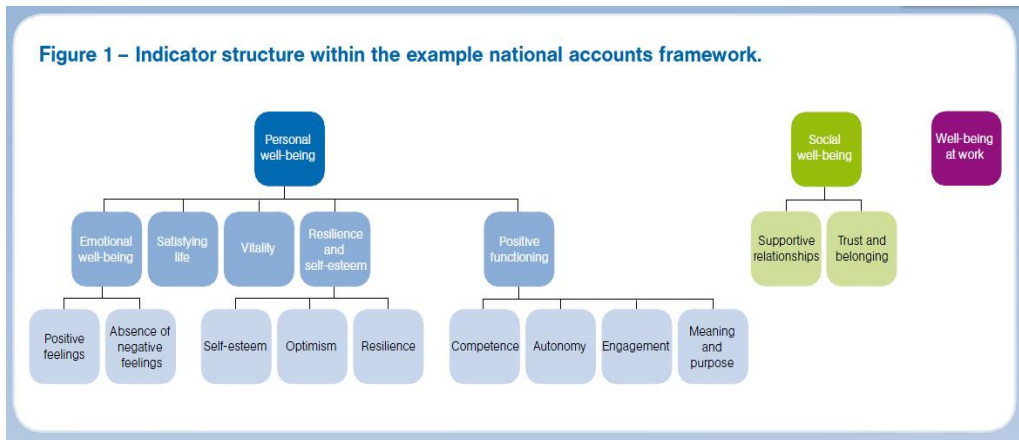


[부그림 1-18] 영국 NAWB 측정틀

○ 지표선정과정

• 지표분류

NAWB는 3개의 웰빙지수, 2개의 주요지표(headline measures/ main indicator), 7개의 주요 구성지표(main components), 10개의 하위 구성지표, 그리고 기타 well-being at work 지표로 구분할 수 있다. 구성지표들은 여러 설문 결과에 의해 만들어진 통합지표이다. 이 통합지표들을 합쳐서 2개의 주요지표(개인적 웰빙과 사회적 웰빙)와 기타지표(well-being at work)로 만드는데 이를 0에서 10사이의 점수로 표현한다. 그리고 이 2개의 주요지표를 2:1, 1:1, 하위가중치(lowest weighting)로 합쳐서 웰빙지수를 만든다 ([부그림 1-19]).



[부그림 1-19] 영국 NAWB 지표체계

## ○ 결과물

- 보고서 National Accounts of Well-being(2009)
  - 1) 국가별 지수 순위 및 영역에 대한 스파이더 다이어그램
  - 2) 지표나열법(주로 국가비교, 가끔 연령/지역별)
  - 3) 정책 활용법 제안
- 웹사이트
  - 1) 보고서 제공
  - 2) 유럽국가 비교가능 대화형 그래프
  - 3) 지표의 z-score 자료

## ○ 결과물 활용 방안

NAWB의 보고서는 영국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과 그것의 측정방안에 대한 정통적인 견해를 재평가하는데 목표를 둔다. 보고서에서는 다음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측정틀을 제시한다.

- 1) 사회적 발전을 평가하는 새로운 방법
- 2) 정책결정에 대한 교차분석(cross-cutting) 및 더 많은 정보에 대한 접근
- 3) 정부와 민간의 더 나은 참여관계

중앙 정부가 해야할 일에 대한 주요 권고는 다음과 같다.

- 1) NAWB에 성명서(manifesto) 약속을 함
- 2) 국가통계청이 웰빙을 측정하게 함
- 3) 웰빙을 더 큰 사회적·환경적 지속가능성 범위로 측정
- 4) 유럽연합의회(European Parliament)와 유럽연합위원회(European Comission)가 리더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 지지
- 5) 국제적, 국가적, 지역적 의사결정자들이 웰빙 측정에 대한 이야기를 펼칠 수 있도록 지지
- 6) 민간의 지지를 동원
- 7) NAWB의 기존의 연구결과와 잠재적인 구조에 대해 더 깊은 탐험, 분석, 대화를 촉진



## 15) 핀란드 Findicator

추진주체	핀란드 통계청, 총리실(Prime Minister's Office)의 공동과제
참여주체	지표개발전문가, 각 정부부서의 담당자
시작년도	2007
범위	핀란드
지표체계	영역 12개, 지표 약 185개
지표선정자	핀란드 통계청, 지표자료 제공자(정부부서 등)과 지표사용자(의회의원, 기자 등)
추진단계	공표
결과물	보고서 없음 온라인 지표나열법(시계열)

### ○ 주 체

핀란드의 Findicator는 국가통계청과 총리실의 협력업무로 진행된다. 또한 지표개발 전문가와 각 정부부서의 담당자가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다. 지표자료 제공처로는 Advisory Board for Defence Information, The Finnish Border Guard, Finnish Centre for Pensions 등이 있다.

### ○ 연 혁

2007년 총리실에서 현존하는 지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과제를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 ○ 목 적

Findicator는 다음의 네 가지 목적을 따른다.

- 1) 핀란드 사회발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 2) 지표의 사용가능성과 접근성을 개선한다.
- 3) 신빙성 있는 정보를 이용한 의사결정을 지지한다.
- 4) 지표 뿐만 아니라 기술, 정기적 업데이트, 정보자료와의 연결을 중요시한다.

○ 지표선정과정

• 지표선정자

핀란드 통계청이 지표자료 제공자(정부부서 등)와 지표사용자와 같이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지표에 관한 피드백을 받기 위해 2008년에 의회의원, 의회의원의 비서, 공무원, 기자, 교사, 연구원, 지역 의사결정자, 상담가 등의 인터뷰를 통하여 지표선정에 대한 의견을 수집하였다.

• 지표선정절차

Indicator의 지표는 네 가지 과정을 통해 결정된다.

- 1) 국내외 지표나열에 대한 조사와 공통지표를 알아본다.
- 2) 지표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사용자들(의회의원, 의회의원의 비서, 공무원, 전문가 등)의 피드백을 받아 지표를 수정한다.
- 3)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다
- 4) (온라인 서비스 등의)콘텐츠를 제작한다.

○ 측정틀(영역 구성)

지역사회와 교통(community structure and transport), 문화(culture), 경제(economy), 교육과 연구(education and research), 에너지(energy), 환경과 자연자원(environment and natural resources), 건강(health), 소득, 지출과 부채(income, expenditure and indebtedness), 노동시장 (labour market), 참여(participation), 인구(population), 안전(security)

○ 결과물

• 온라인 [www.findikaattori.fi/en](http://www.findikaattori.fi/en)

- 1) 지표나열법(시계열)
- 2) 지표의 예상 업데이트 날짜 표기

○ 결과물 활용 방안

본 과정은 빠르고 신빙성있는 사회발전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사결정자, 공무원, 전문가, 교사, 기자, 시민)의 업무에 사용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16) 독일 Wachstum, Wohlstand, Lebensqualität(W3, Growth, Well-being and Quality of Life)

추진주체	성장, 웰빙, 삶의 질(Growth, Well-being, and Quality of Life) 조사위원회
시작년도	2010년
범위	독일
지표체계	차원 3개, 주요지표 10개, 경고등 지표 9개
지표선정자	조사위원회
추진단계	지표선정에 대한 보고서 발간
결과물	보고서(독일어)

### ○ 주 체

W3이라고 불리는 독일의 Wachstum, Wohlstand, Lebensqualität(Growth, Well-being and Quality of Life)는 성장, 웰빙, 삶의 질에 대한 지표설립 과제로써, 독일 정부의 ‘성장, 웰빙, 삶의 질’ 조사위원회에 의해 추진되었다. 이 조사위원회는 의회위원 17명과 전문가 17명으로 구성되어있고 2년 동안 유지된다.

### ○ 프로젝트 특징

W3의 지표체계는 3개의 차원(경제, 생태, 사회적인 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10개의 주요지표로 표현된다. 또한 9개의 경고등(warning light) 지표를 만들었는데 이는 주요지표처럼 매년 보고되지 않고 보고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만 사용된다.

### ○ 목 적

- 1) 경제적·사회적 성장의 중요성에 대한 조사
- 2) 웰빙·발전의 통합지표 작성
- 3) 성장, 자원소비, 기술발전의 상호연결성을 배제하고 관찰할 수 있는 가능성
- 4) 지속가능하고 일관된 정책의 개요작성
- 5) 세계적으로 일, 소비자행동, 생활방식이 지속가능 생산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면밀히 조사
- 6) 현재 축적된 이론적인 지식 이외의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권고 작성

○ 결과물

- 최종 보고서(독일어)
- 웹사이트(독일어) W3 과제와 지표에 대한 설명



## 17) 미국 Key National Indicator Systems (KNIS)

추진주체	미국의회의 국가주요지표체계(KNIS) 위원회
참여주체	전미과학아카데미(NAS, National Academy of Science), The State of America(SUSA), 미국 회계감사원(GAO,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시작년도	2003년
범위	미국
지표체계	미정
지표선정자	전미과학아카데미 및 SUSA
추진단계	법 제정 후 준비 중

### ○ 주 체

미국 국가주요지표체계(KNIS, Key National Indicator Systems)는 미국의회의 KNIS 위원회에 의해 진행된다. 참여주체인 전미과학아카데미, State of America, 미국회계감사원의 주체변경 과정에 대해서는 아래의 연혁에서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 ○ 연 혁

- 2003년 미국회계감사원이 전미과학아카데미와 함께 포럼을 개최. 전국에서 60명의 리더들이 모임. 회계책임, 사업, 교육, NGO, 정치, 노동, 미디어 등의 지역공동체 대표들이 참여
- 2004년 미국 회계감사원이 미국에서 사용되는 주요지표체계에 대해 조사하여 의회에 "Informing our nation - Improving how to assess the position and progress of the United States" 보고서 제출. 이에 따라 국가조정위원회(NCC, National Coordinating Committee)에서 국가주요지표체계 작성을 지지
- 2005년 - 2007년 국가조정위원회의 요청으로 전미과학아카데미가 국가주요지표 계획(KNII, Key National Indicators Initiative)을 설립. 사립재단(private foundation)의 후원을 받음
- 2006년 말 미국회계감사원이 국가주요지표체계가 독립적, 사립적, 중립적(비정치적)이고 납세의무가 없는 기관에서 실시되었으면 한다는 제안서 발간
- 2007년 미국회계감사원의 뜻에 따라 The State of the USA (SUSA) 설립. SUSA는 연방정부와 협동하여 법률을 만드는 작업을 함. 12개의 주요영역과 12개의 교차영역, 300개의 지표를 작성할 예정이었음. 2009년 20개의 주요건강지표 작성. 이를 시민들이 손쉽게 볼 수 있도록 인터넷 서비스로 제공(beta 서비스)

- 2008년 주요국가지표 법률(Act)제안서가 작성됨
- 2010년 3월 환자보호 및 의료비용합리화 법(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of 2010)이 통과됨. 이 법에서 전미과학아카데미가 독립기관(State of America)과 함께 미국 국가주요지표체계를 작성토록 하고, 의회에서 지정한 8명의 멤버가 국가주요지표체계 위원회(Commission on Key National Indicator)를 이끌도록 함.
- 또한, 국가주요지표체계 위원회가 국가주요지표체계를 지휘하고 그 발전방안에 대해 권고를 제시하며 연방사용자(federal user)와 정보제공자와 같이 조정하여 관련성있고 좋은 품질의 자료를 확실히하도록 함. 그리고 전미과학아카데미와 계약체결하고 의회에 국가주요지표체계 설립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제공토록 함

○ 목 적

- 1) 전략적인 계획을 보고한다.
- 2) 성과 및 책임을 높인다.
- 3) 의회의 감독 및 의사결정을 알려준다.
- 4) 감독을 용이하게 하고 시민참여를 더 크게 촉진시킨다.



## 18) 오스트리아 How's Austria (Wie geht's Österreich?)

추진주체	오스트리아 통계청
시작년도	2012년
범위	오스트리아
지표체계	영역 3개, 차원 20개, 주요지표 30개, 부가지표 여러 개
지표선정자	(초기) 오스트리아 통계청 (최종) 전문가 패널의 지표평가
추진단계	공표
결과물	대화형 시계열 그래프, 신호등 2020년 추계, 지표나열법(시계열, 인구하위집단 비교, EU비교)

### ○ 주 체

오스트리아의 How's Austria는 오스트리아 통계청(Statistik Austria)이 추진하는 연구 과제이다. How's Austria는 European Statistical System(ESS)의 “Sponsorship Group on Measuring Progress, Well-being and Sustainable Development” 제안서에 나오는 지표에 관한 권고를 참고한다.

### ○ 지표선정절차

How's Austria는 기존에 존재하는 EU(예: Europe 2020 indicator)와 OECD 지표, 그리고 국가과제인 MONE-set of indicator의 지표 중 필요한 지표를 선정하여 사용한다. 이를 위해 과학기관과 특별이익집단에게 수차례 자문을 받는다. 지표의 1차 선정은 오스트리아 통계청이 하고 최종 선정은 전문가 패널의 지표평가를 통하여 결정한다. 여기에 참가하는 전문가 단체로는 IHS, WIFO, WU Wien, SERI, BOKU 등이 있다. 오스트리아 통계청은 지표평가에 참여하지 않는다.

### ○ 결과물

- 웹사이트 (영어) [www.statistik.at/web\\_en/statistics/hows\\_austria/](http://www.statistik.at/web_en/statistics/hows_austria/)
  - 1) 주요지표를 대화형 시계열 그래프로 표시
  - 2) 5개 지표를 시계열 날씨기호(신호등)로 표시
- 웹사이트 (독일어) [www.statistik.at/web\\_de/statistiken/wie\\_gehts\\_osterreichs](http://www.statistik.at/web_de/statistiken/wie_gehts_osterreichs)
  - 1) 주요지표를 대화형 시계열 그래프로 표시

- 2) 5개 지표를 시계열 낱씨기호(신호등)로 표시
- 3) 주요지표 및 기타 지표의 흐름 및 변화에 대한 자세한 설명
- 4) 지표에 따라 2020년까지의 추계를 보여줌
- 5) 지표나열법(대부분 시계열, 때때로 인구하위집단비교/ EU비교)
- 6) 각 지표 아래 지표의 최종업데이트 날짜 및 출처, 시계열 자료의 정기성 정도, 국제 비교 가능여부에 대한 설명이 담긴 문서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게 링크 제공

## 2. 단일국가 삶의 질 연구 현황

〈부표 1-3〉 단일국가 삶의 질 연구 현황

국가	뉴질랜드	호주	호주	캐나다	미국
과제명	Quality of Life Project	Australian Unity Well Being Index	Measures of Australia's Progress (MAP)	Canadian Index of Wellbeing (CIW)	Key National Indicator Systems (KNIS)
추진주체	웰링턴, 오클랜드, 크라이스트처치, 더니든 시 의회의 삶의 질 연구팀	Australian Univ., Deakin 대학의 호주 삶의 질 센터	호주통계청(ABS)	위타루 대학 응용보건학부 중심의 CIW 내부네트워크	국가주요지표체계위원회(KNIS)
참여주체	포리투아, 헛 의회 및 매회 참여도시의 의회 연구팀	X	X	외부네트워크, 국내고문위원회, 국외전문가그룹, 국내 연구자문위원회, 학내그룹	전미과학아카데미 (NAS), State of America, 미국회계감사원 (GAO)
시작연도	1999년	2000년	2002년	1999년	2003년
최도체계	영역 11개, 주요지표 68개, 개별최도 168개	지수 2개, 국가영역 6개, 개인영역 8개	(기준) 영역 3개, 주요차원 17개, 세부지표 100개 (미래) 영역 4개, 주제 26개, 요소 120개, (지표, 미경)	영역 8개, 지표 64개	미경
지수여부	X	O	X	O	X
추진단계	공표	공표	공표	공표	법 제정 후 준비 중
주요 보고서 (최신년도)	Quality of Life in Twelve of New Zealand's Cities (2012)	What makes us happy (2010)	Measures of Australia's Progress (2010)	How are Canadians Really Doing? (2012)	X
보고서 내용	프로젝트과정 및 주요결과 지표나열법 (주요 지역별, 일부 인종/연령/시계열)	개인/국가 웰빙지수 (시계열), 지표나열법 (시계열/영역별/인구속성/지역)	주요지표의 10년간 변화(신호등) 주요지표의 지표나열법(시계열)	개념 및 측정설 명, 종합지수&영역별 종합점수(시계열), 지표(신호등)	X
웹사이트 내용	설문조사 및 웰빙보고서 제공 5개의 지표에 대한 대화형그래프	보고서제공 자신의 개인웰빙지수 확인가능	주요지표 보고서 및 데이터 제공 주요지표의 0년사이변화(신호등) 지표나열법(주요 시계열, 가끔 인구속성)	보고서 제공 측정 및 영역 설명 종합지수&영역별 합점수(시계열) 지표의 전년대비변화(신호등)	(2010년) 위원회가 KNIS을 이끌고, NAS가 State of America와 함께 지표를 작성토록 하는 법률 통과
기타		설문조사 결과로 개인웰빙지수, 국가웰빙지수를 계산		통계청의 자료를 지표화	

국가	영국	영국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프로젝트명	Measuring National Well-being	National Accounts of Well-Being (NAWB)	Life Situation Index - Wellbeing in Netherlands	How's Austria (Wie geht's Osterreich?)
추진주체	영국통계청(ONS)	The New Economics Foundation (NEF)	네덜란드 사회연구원 (SCP)	오스트리아 통계청 (Statistik Austria)
참여주체	X	European Social Survey (the ESS), Well-being Institute(WBI), 교수진	X	
시작연도	2010년	2009년	1973년	2012년
최도체계	영역 10개, 주요지표 40개 (전체지표 개별예정)	웰빙지수 3개, 주요지표 2개와 기타지표 1개, 구성지표 7개, 하위구성지표 10개	지수 1개, 영역 8개, 지표 19개	영역 3개, 차원 20개, 주요지표 30개, 기타 부가지표
지수여부	X	O	O	X
추진단계	공표	공표	공표	공표
주요보고서 (최신발간년도)	Measuring National Well-being: Life in the UK, 2012	National Accounts of Well-being (2009)	Wellbeing in the Netherlands - The SCP life situation index since 1974 (2010)	X
보고서내용	지표나열법 (주로 시계열, 일부 인구속성 및 지역 비교) 보고서 내 링크로 엑셀다운가능	국가별 지수 순위 및 영역 스파이더 다이어그램, 지표나열법(주로 국가일부 연령/지역별), 정책활용법제안	2010 수정 개념틀에 대한 설명 지수 중점 분석 (인구속성별/시계열)	X
웹사이트내용	보고서 제공 대화형 웹/그래프/지도/막대 그래프	보고서 제공 유립국가 비교 대화형그래프 지표 z-score 자료	보고서 제공 개인의 웰빙정도 측정가능 (전체시민과 비교)	주요지표에 대한 대화형 시계열 그래프 5개 날짜기호(dashboard), 지표나열법(대부분시계열 지표로 인구하위집단비교, EU비교) 때때로 따라 2020년까지 추계를 보여줌 각 지표에 대한 정보문서 다운가능
기타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서 통합지표인 '요소(Component)' 작성		





국가	벨기에	이탈리아	스위스	독일
과제명	WellBeBe	Benessere Equo e Sostemibile (BES) : Measuring Equitable and Sustainable Wellbeing in Italy	MONET Indicator System	Wachstum, Wohlstand, Lebensqualität (Growth, Well-being and Quality of Life)
추진주체	벨기에 연방과학정책국 (Belspo)	경제와 노동을 위한 위원회(CNEL), 이탈리아 통계청(Istat)	스위스 연방통계청(SFSO), 연방환경국(FOEN), 연방주거개발국(ARE)	성장, 웰빙, 삶의 질 조사위원회
참여주체	ULB 대학교, KULLEUVEN 대학교, Sustainable Development Institute (IDD)		X	
시작연도	2006년	2010년	2000년대 초반	2010
척도체계	X	영역 12개, 지표 134개	주요주제 12개, 주제 26개, 주요지표 17개, 세부지표 163개	차원 3개, 주요지표 10개, 경고등지표 9개
지수여부	X	X(가능성 평가 중)	X	X
추진단계	측정을 공표	공표	공표	주요 지표 설정
주요보고서제목 (최신발간년도)	WellBeBe-Results: Towards indicators of Well-being for Belgium (2011)	BES 2013: Equitable and Sustainable Wellbeing in Italy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 2012	
보고서내용	Focus Group, Q-Methodology, 일반 설문조사 및 경제 계량분석(OLS & Logit), 시민패널 결과의 웰빙개념를설명	보고서(이탈리아어): 지표나열범 (지역별/성별/연도별) 요약보고서(영어): 영역별 결과설명	지표나열범(시계열) 지표의 목표동향, 관측동향에 대해 증가/감소/유지 표시(화살표)	프로젝트 및 지표선정에 관한 보고서(미확인)
웹사이트내용	X	(영어)보고서 제공 지표동향 (시계열, 상호등/화살표)	보고서 제공	(독일어) 프로젝트 및 지표선정에 관련된 설명
기타	2006년부터 2011년까지의 과제, 측정틀제작에 초점을 맞춤			

국가	핀란드	부탄	일본	중국	아일랜드
과제명	Findicator	Gross National Happiness(GNH)	Measuring National Well-being	Hong Kong Quality of Life Index	Measuring Ireland's Progress
추진주체	핀란드 통계청, 총리실(Prime Minister's Office)	부탄연구센터	내각부 웰빙추진 위원회	홍콩중문대학의 삶의 질센터	아일랜드 통계청
참여주체	전문가그룹 및 각 정부부서의 담당자	X		국내의 학자, 홍콩중문대학 사회과학 교직원	X
시작연도	2007년	1999년	2010년	2003년	2003년
최도체계	영역 12개, 지표 약 185개	지수 1개, 영역 9개, 지표 33개, 세부지표 124개	영역 3개, 요소 12개, (+2주제) 임시지표 132개	지수 1개, 하위지수 3개, 지표 21개	영역 10개, 세부영역 49개, 지표 109개
지수여부	X	O	X	O	X
추진단계	공표	공표	측정틀 및 임시지표 설정	공표	공표
주요 보고서 (최신발간년도)	X	An Extensive Analysis of GNH Index (2012)	Measuring National Well-Being: Proposed Well-being Indicators (2011)	CUHK Hong Kong Quality of Life Index (2012)	Measuring Ireland's Progress, 2010
보고서 내용	X	분석/지수작성/정책평가방법, 지역별/인구속성별 각 영역이 전체 행복/불행/부족에 미치는 영향	측정틀 및 임시지표 설정	지수 그래프 (시계열) 지표결과 테이블 (시계열)	지표나열법(시계열, 인구하위집단) 페이지 왼쪽: 아일랜드 지표 페이지 오른쪽 EU평균 및 국가비교
웹사이트 내용	지표나열법 (시계열) 지표의 예상 update시기 표기	지수 및 정책평가방법 설명, 설문항 리스트, 보고서 및 설문결과 파일제공	X	보고서 제공	보고서 및 엑셀자료 제공
기타		2008년 제5대 부탄 국왕이 임원군주제를 도입하며 국민행복지수(GNH)를 국가정책의 기본틀로 채택			아일랜드 지표와 유럽지표로 구분